

20
2004-2024



a|t|v

2024 12+2025 01
vol.178

성남문화재단

2024 December & 2025 January
Vol.178



COLD BLOOD

7 episodes about death



a|t|v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www.snart.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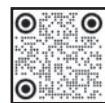
특집 하이브리드 퍼포먼스
<콜드 블러드>
인터뷰 연출가 자코 반 도마엘
트렌드 지금, '텍스트 힙'의 시대
아티스트 토크 작가 구래연

© Julien Lambert

Contents

2024 12+2025 01

Vol.178



더 좋은 <아트뷰>를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성남문화재단 격월간 <아트뷰>
Bimonthly Art & Culture Magazine

2024년 12+2025년 01월호

통권 178호(비매품) 2024년 12월 1일 발행

등록번호 성남, 마 00015 | 등록년월일 2005. 9. 12

간별 격월간 |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이사장 신상진 | 발행인 서정림 | 편집인 장동환

기획·편집 남소연 nam@snart.or.kr | 교열 이지수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전화 031-783-8024 | 홈페이지 www.snart.or.kr

편집·디자인 오니트(주) 02-337-3690 | 인쇄 더프레스

<아트뷰>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게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성남문화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인쇄물은 친환경 용지와 친환경 콩기름 인쇄로 제작되었습니다.

C O L D B L O O D	
미리보기	04
하이브리드 퍼포먼스 <콜드 블러드>	
인터뷰	10
연출가 자코 반 도마엘	
칼럼	16
자코 반 도마엘의 작품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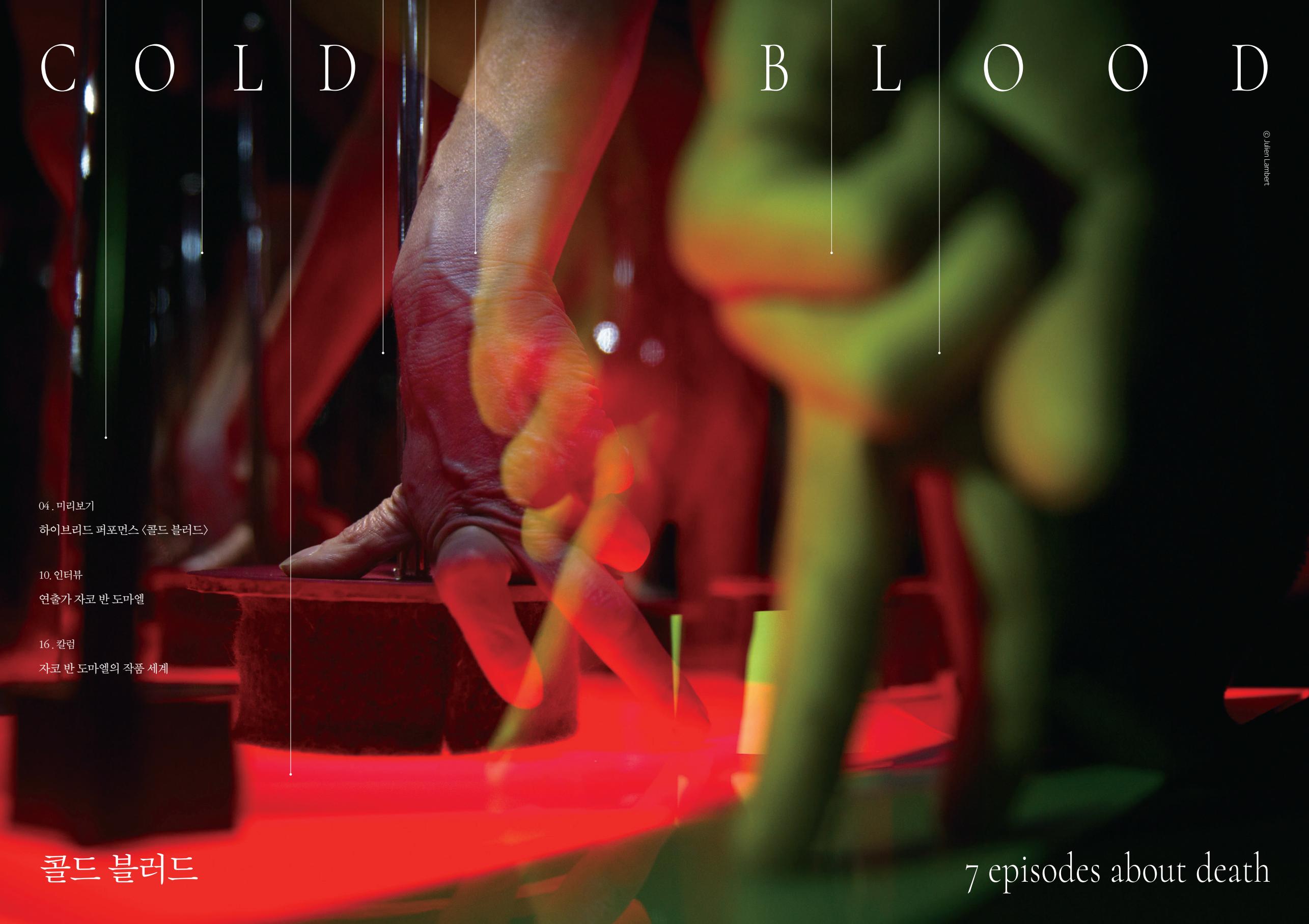
V I E W	
미리보기 1	22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미리보기 2	24
미카오 오케스트라, 리오 쿠오크만 & 김계희	
미리보기 3	26
오! 마이 패밀리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보기 4	28
프리다 칼로 레플리카전 'Viva Frida Kahlo'	
다시보기 1	34
이자벨 위페르의 <메리 스튜어트>	
다시보기 2	38
마티아스 괴르네 & 마리아 조앙 피레스 <겨울 나그네>	
SKETCH	42
2024 성남페스티벌 현장을 가다	



하이브리드 퍼포먼스 <콜드 블러드> © Julien Lambert

C U L T U R E +	
영화 속 클래식	56
영화 <아이언맨>과	
살리에리 피아노 협주곡 C장조	
트렌드	60
텍스트와 독서 열풍	
생활 속 디자인	66
활자 진화의 역사	

S E O N G N A M +	
아티스트 토크	76
작가 구래연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84
캘린더 + 맵	
12월의 큐레이션	89
월별 프로그램 가이드	
SNART NEWS	94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안내	96



C O L D

B L O O D

04. 미리보기

하이브리드 퍼포먼스 <콜드 블러드>

10. 인터뷰

연출가 자코 반 도마엘

16. 칼럼

자코 반 도마엘의 작품 세계

콜드 블러드

7 episodes about death



하이브리드 퍼포먼스 <콜드 블러드>

죽음이 일깨우는 삶의 감각들

글 김주연 연극 평론가

월간 <객석> 기자로 출발해 공연과 문화에 관련된 글쓰기와 강의, 드리마티그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저서로 『페테르부르크 막이 오른다』와 『슬라브 막이 오른다』가 있다.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손가락들이 펼치는 서정적인 춤과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보여 주는 독특한 형식의 공연 <키스 앤 크라이>. 정교한 미니어처 세트에서 섬세하게 재현된 이미지들이 애틋한 사랑의 기억을 끄집어냈던 이 작품은 전 세계 20여 개국에 소개되어 꾸준한 사랑을 받았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에 초연되어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다. 올겨울 성남아트센터를 찾아오는 <콜드 블러드>는 10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키스 앤 크라이> 창작진이 선보이는 또 다른 명작이다. 죽음을 맞이한 이들의 7가지 기억을 다채롭고 생생한 감각으로 무대 위에 펼쳐 낸다.



© Julien Lambert

<키스 앤 크라이>가 지나간 ‘사랑’의 추억과 옛 을 열거하면서, 죽음 또한 삶과 같아서 서로 똑같 연인의 기억을 써줄과 날줄 삼아 엮어 내었다면, 은 죽음은 없음을 상기시킨다.

이번 작품 <콜드 블러드>를 관통하는 주요 모티 <키스 앤 크라이> 무대가 한 여인이 사랑했던 5 프는 ‘죽음’이다. 기상 악화로 인한 항공기 추락 명의 연인에 대한 기억을 각기 다른 에피소드로 사, 빗길을 달리던 자동차 사고사, 급작스런 폭설 그려 냈다면, <콜드 블러드>에서는 예상치 못한 로 인한 실종사, 질병으로 인한 급사, 우주 비행 죽음에 관한 7개의 에피소드가 차례로 펼쳐진다. 사의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의 이렇듯 하나의 주제를 반복, 변형하면서 다수의 일곱 가지 마지막 순간들이 무대 위에 다채로운 예시 혹은 서로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키스 앤 크라이>에 이어 이 것은 자코 반 도마엘 감독이 즐겨 사용하는 방식 번에도 대본을 쓴 작가 토마 귄지그 Thomas Gunzig는 중 하나로, 영화 <미스터 노바디>에서는 주인공 내레이션을 통해 달콤한 죽음, 잔혹한 죽음, 끔찍 의 수많은 선택으로 인해 갈라진 여러 버전의 한 죽음, 때 이른 죽음 등 가지각색 죽음의 양상 생을 보여 주기도 했다.



© Julien Lambert

자코 반 도마엘 감독이 펼쳐 내는 생의 감각

닐라 향이 나던 보드라운 살결, 한여름에 갓 베어 무대 위에는 연달아 죽음이 펼쳐지지만, 사실 <콜 낸 풀 냄새, 나뭇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 정 드 블러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죽음 그 원에서 마시는 아몬드 우유의 맛과 같은 선명한 자체가 아니라 죽음의 순간, 생과 사의 경계가 같 감각들이다. 대부분 색깔과 냄새, 소리, 맛과 촉감 리는 그 마지막 순간의 기억이다. 대부분의 사람 등 오감을 통해 기억된 이미지들이 생생하게 구들은 죽음의 순간이 오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현되면서 삶의 한순간을 끄집어낸다. 사실 이 모 주마등처럼 지나갈 거라 믿지만, 무대 위 인물들은 죽음을 맞이한 순간 오직 하나의 장면만을 떠 가깝다.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서 이들은 모두 가 올린다. 또한 그것은 결혼식이나 졸업식 같은 중 장 선명한 삶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대한 사건도, 트로피나 메달 같은 영광의 기억도, 이 작품의 연출을 맡은 자코 반 도마엘은 공연뿐 부모 형제나 연인 같은 구체적인 인물도 아니다. 만 아니라 <토토의 천국> <제8요일> 등으로 널죽음의 순간 이들이 떠올리는 것은 어느 오후 바리 알려진 세계적인 영화감독이기도 한데, 그의

작품에서 죽음과 삶은 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토토의 천국>과 <미스터 노바디>는 모두 주인공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지나간 삶을 반추하며 회상하는 구조로 이루어진 영화들이다. 또 <이웃집에 신이 산다>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각자 죽음까지 남은 시간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받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게 될 시간을 알게 되자 비로소, 스스로 원했던 진짜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자코 반 도마엘의 작품에서 죽음은 항상 삶을 비추고 삶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역할을 해왔으며, 그런 의미에서 <콜드 블러드>에 등장하는 7번의 죽음 역시 결국은 7개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작은 것들이 만드는 큰 울림

<키스 앤 크라이>에서 손가락만으로 다채로운 감정의 스펙트럼을 선보였던 안무가이자 도마엘 감독의 아내이기도 한 미셸 안느 드 메이는 이번 공연에서도 안무와 실연을 맡아 놀라운 손가락 연기를 펼친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미니어처 속에서 그녀의 손과 손가락은 살아 있는 인물처럼, 때로는 그 이상으로 섬세한 감정의 결을 펼쳐 내면서 고독과 절망 같은 절절한 감정들을 고스란히 전한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고전 뮤지컬 영화와 모리스 베자르의 <볼레로> 무대가 오마주처럼 삽입되었는데, 반짝이는 망사를 두른 채 현란한 탑 댄스를 추는 손가락 커플과 새빨간 테이블 위에서 박력 있게 <볼레로>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네 개의 손은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지없다. 인형 조종과 카메라, 세트 배치와 특수 효과, 조명과 내레이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스태프들이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호흡과 협동으로 실연과 촬영을 진행하는데,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과 훈련이 뒷받침되었을지를 생각하면 절로 감탄이 나올 지경이다.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아름다운 장면들은 모두 이들의 정직한 땀과 노력이 빚어내는 마법과 같다.

무대와 스크린을 넘나드는 연출

막이 오름과 동시에 시작되는 카메라 촬영은 막이 내릴 때까지 계속되면서 마치 무대 위에서 영화 한 편을 오롯이 찍어 내는 듯한 인상을 준다. 덕분에 관객은 무대 위 세트에서 펼쳐지는 분주한 움직임과 이를 따라다니는 카메라, 그리고 그 결과로 비치는 실시간 영화까지 여러 층위의 볼

거리를 마주하게 되는데, 특히 스크린 위에 투사되는 영상은 다른 걸 포기하고 이것만 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영상미를 보여 준다. 이 작품에서 자코 반 도마엘은 공연 전체를 지휘하는 연출가인 동시에 각 장면에서 실시간 촬영되는 영상을 총괄하는 영상 감독이기도 한데, 실제로 공연 내내 실시간으로 보이는 카메라의 앵글과 구도에서는 도마엘 감독 특유의 시선과 미학이 느껴지기도 한다.

무대 위에서 스크린과 실연의 장르를 넘나들듯 이, 무대 밖에서도 자코 반 도마엘 감독은 영화와 공연이라는 서로 다른 장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흔적을 남긴다. <키스 앤 크라이>와 <콜드 블러드> 같은 공연에서는 무대 위에 무성

*12월 13일(금)과 14일(토),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콜드 블러드>를 만날 수 있다. 배우 유지태가 2014년 <키스 앤 크라이>에 이어 이번 <콜드 블러드>에서도 한국어 내레이션을 맡았다.



연출가 자코 반 도마엘

비밀을 알기에 더 매력적인 마술

글 김주연 연극 평론가

<토토의 천국> <제8요일> 등으로 유명한 자코 반 도마엘은 세계적인 영화감독이기도 하지만 서커스와 오페라, 연극 등 다양한 공연 작업에 참여한 연출가이기도 하다. 특히 아내이자 안무가인 미셸 안느 드 메이, 작가 토마 귄지그 등과 함께 작업한 라이브 퍼포먼스 <키스 앤 크라이>는 기술과 감성을 결합한 독창적인 콘셉트와 형식으로 전 세계 관객의 찬사를 받은 바 있다. 그리고 <키스 앤 크라이>의 감동을 잊는 또 다른 공연 <콜드 블러드>가 12월 성남아트센터 무대를 찾는다. 공연에 앞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도마엘 연출가는 이 작품이 팀의 '공동 작업'임을 수차례 강조했고, 실제로 극중 안무와 관련된 부분은 미셸 안느 드 메이가 직접 답을 들려주었다.

전작 <키스 앤 크라이>가 지나간 '사랑'의 추억을 주로 보여 주었다면 <콜드 블러드>에서는 '죽음'과 삶의 마지막 순간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죽음을 주요 모티프로 삼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일단, <키스 앤 크라이>와 <콜드 블러드>의 작

자코 반 도마엘 감독과 아내이자 안무가인 미셸 안느 드 메이 © Julien Lambert



“<콜드 블러드>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제작 과정과
스크린에 투사된 최종 결과물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경이로운 결과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마술과도 같죠.”

업 과정은 영화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영화에서
는 주요 모티프와 주제를 먼저 정하고 대본을

<콜드 블러드>라는 제목에 담긴 특별한 의
미가 있나요?

쓰는 것으로부터 과정이 시작되고 그 대본에 따
라 장면을 설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반대로
작업합니다. 대본 없이 즉흥적으로 작업을 시작

하고 무대, 손과 손가락, 사물과 같은 다양한 요
소를 활용하면서 장면 장면을 어떻게 꾸밀지 팀
전원이 함께 탐구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카메라와 조명의 상호 작용 속에서 이 요소들이
어떻게 잘 어우러질 수 있는지 찾아갈 수 있고, 랑했던 5명의 연인에 대한 기억을 그려 냈습니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주제와 모티프가 점차
발전해 나가게 되죠. 이번 작품을 작업하면서
'사고'라는 주제를 떠올리고 몇 가지 사고 장면
의 의미가 담겨 있는지요?

을 시험해 봤는데 그 과정에서 '어리석은 죽음'
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이렇듯 우리 팀
의 창작 과정에서 대본과 주제는 늘 가장 마지막에
결정됩니다.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
한 상황에 대한 아이디어를 탐구한 뒤, 작업의
맨 마지막에 내레이션이 이 모든 요소들을 연결
해 전체에 일관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키스 앤 크라이>에서는 한 여인이 평생 사
랑했던 5명의 연인에 대한 기억을 그려 냈습니

다. 이번 <콜드 블러드>에서는 예상치 못한 7번
의 죽음이 펼쳐지죠. 5와 7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요?

<키스 앤 크라이>에 등장하는 다섯 개의 사랑
이야기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손의 다섯 손가락
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콜드 블러드>에서도 비
슷한 형식으로 여러 개의 미시적 이야기를 채택
했지만, 자연스레 최종적으로 일곱 개의 이야기
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짧은 삶 외에 지나
간 과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부조리

한 죽음을 찾아내는 것이었고, 여기에 다소 어두운 유머를 드리우고자 했습니다. 시각과 청각을 넘어 더 다채로운 감각을 느끼게 해 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촉각, 미각, 후각 같은

<콜드 블러드>에 등장하는 비행기 사고, 자동차 사고, 병실에서의 죽음 등 다양한 죽음의 상황들은 창작진의 개인적인 경험을 반영한 것인가요, 완전히 상상으로만 만들어진 것인지요? 모두 즉흥적 연구의 결과입니다. 양상은 다르지만 각각의 죽음은 모두 '광대'와 '넘어짐'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광대가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는 모르지만 끝내 넘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곤 합니다. 결국 광대는 넘어지게 되어 있고 이는 언제나 웃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현상은 비극적이면서도 희극적이며, 광대의 세계와 무성영화의 세계를 동시에 떠올리게 합니다.

<키스 앤 크라이>에서도 놀라움을 선사했던 손가락 연기와 춤이 이번 공연에서도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오로지 손가락과 손만 이용한 섬세하면서도 에너지 넘치는 안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키스 앤 크라이>와 차별되는 <콜드 블러드>만의 안무 콘셉트나 특별한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극중 죽음을 앞둔 이들이 떠올리는 삶의 풍경은 늘 보드라운 살결, 풀 냄새, 바닐라 향, 커피의 맛, 거위의 솜털 등 냄새, 소리, 촉감과 같은 생생한 감각들입니다. 또 공연 내내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등 오감을 자극하는 이미지와 문구들이 반복됩니다. 이렇듯 감각적인 표현을 중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공연 중 공감각이 도드라지는 것은 우리 팀의 안무가 미셸과 작가 토마가 공감각을 중시하는 예술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공감각이라는 것은 여러 감각이 상호 작용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음표가 짜게 느껴진다거나 단어가 노란색으로 다듬는 것과 같은 거죠. 이러한 감각적 경험은 우리를 통해 통합됩니다. 저는 토마에게 텍스트를 통해 촉각과 냄새를 탐구해 달라

미셸 안느 드 메이 <키스 앤 크라이>에서는 주인공이 두 명이었지만 <콜드 블러드>에는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콜드 블러드>의 안무는 이 세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안무적 대위법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했고, 이는 마치 새의 날갯짓과 같은 손의 상호 작용에서 도드라집니다. <키스 앤 크라이>가 주로 파드도 *pas de deux*와 그 변주에 집중했다면, <콜드 블러드>는 안무에 있어 더 구조적이고 복잡한 게임을 보여 주려 했습니다. 또 각 장면의 안무들은 다양한 레퍼런스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콜드 블러드>는 고전 영화와 문학, 음악적 요소들을 장면에 녹여 내고 있으며, 가오는 것과 같은 거죠. 이러한 감각적 경험은 우리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레퍼리의 작업에 직관적으로 통합됩니다. 저는 토마 런스를 바탕으로 춤과 영화 간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대화를 보여 주고자 했습니다.

정교한 미니어처와 인형, 조명과 소품이 만 들어 내는 작은 세계가 카메라에 의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스크린에 펼쳐지는 형식은 신기하고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마치 영화 한 편을 찍는 과정과 그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관객에게 보여 주는 듯하죠. 이러한 실시간 촬영을 보여 주는 연출 의도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작품은 일종의 일회성 영화를 따라야 합니다. 이 영화는 사전 녹화 없이 무대 위 관객 속 반복해서 앞에서 즉석에서 만들어집니다. 유일한 기록 장치는 현장 관객들의 기억일 뿐, 나머지는 사라질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이 작업에서 가장 흥미로운 하고 합니다.

지점은 제작 과정과 스크린에 투사된 최종 결과

물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곁으로 보이는 경이로운 결과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마술과도 같죠. 때로는 그 비밀을 알고 보는 것이 마술을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만들고 합니다. 이 이중적인 해석은 우리 작품의 필수 요소로서, 관객에게 시선의 자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즉 차자지들이 소리와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있

는 무대와, 무대에서 작아 보이는 모든 것이 커다
랗게 다가오는 스크린 사이에서, 관객 개개인이
시선을 고정하거나 양쪽을 넘나들 수 있는 자유
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공연 전체를 연출하는 연출가이면서 동시에 각 장면에서 실시간 촬영되는 영상을 감독하는 영화감독이기도 한데요,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신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출로서 제 역할은 매우 간단합니다. 단지 공연 현장에서 속도를 조정하고 모두가 준비되었는지 확인만 할 뿐이죠. 팀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미 자신의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세트를 언제 들어오고 이동시키는지, 태양처럼 보이는 조명을 언제 설치하고 언제 카메라 돌리를 밀어야 하는지, 서풍기와 연기를 언제 사용하고 언제 아무

를 따라야 하는지 말입니다. 마치 같은 게임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는 축구 경기와 비슷하지만, 매번 이렇게 서로 공을 주고받으며 함께 일하는 방식이 무대에 서는 것의 마법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합니다.

영화와 공연이라는 서로 다른 장르의 경계를
당신은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키스 앤
크라이>와 <콜드 블러드>에서는 무대 위에서
한 편의 영화를 촬영해 상영하고, 영화 <이웃집
에 신이 산다>에서는 손가락 춤과 미니어처 등
공연의 일부를 재현하기도 했죠. 공연과 영화라
는 두 세계 그리고 두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 당
시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영화적 경험에서 연극적 경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즐기는데요, 둘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즐거움을 제공하죠. 보통 영화 작업을 마치면 공연을 하고 싶어지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에서는 대본이 완성될 때까지 긴 고독의 시간이 이어진 뒤, 그 후에야 현장에서 다른 예술작가들이 집단적으로 작용하는 멋진 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팀원들이 감독 혼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복잡성을 이미지와 연출에 더해 주지요. 하지만 이러한 집단적 역동성은 기고독의 여정이

끝난 다음에야 찾아옵니다. 반면 <콜드 블러드>와 <키스 앤 크라이> 같은 라이브 프로젝트에서는 대본이 마지막에야 등장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과정은 팀원 모두가 자신의 욕망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즉흥적으로 탐구하는 집단적 실험으로 시작됩니다. 마치 사진이 희미한 상태에서 선

명한 모습으로 현상되듯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제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이 시장에서 우리는 이야기의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작가인 토마는 이렇게 흩어진 요소들을 공통의 실로 연결해 주는 텍스트를 도입하게 됩니다.

극중 피나 바우슈의 <카페 뮐러>, 모리스 베
자르의 <볼레로> 그리고 프레드 아스테어와 진
저 로저스의 탐 댄스가 등장하는 고전 할리우드
뮤지컬 영화에 대한 오마주 같은 장면들이 눈여
띄었습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었는지요?

미셸 안느 드 메이 이 인용들은 단순히 안무적인
의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차원으로 확
장됩니다. 그중에서도 영화 장면들은 매우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코드 블러드>는 이러한

한 오마주와 레퍼런스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동시에 시대를 초월한 음악적 레퍼런스를 끌어옴으로써 그 장면들이 무대 위 스토리를 넘어 다른 차원에서 재해석될 수 있도록 이끌어온다.

갑니다. 예를 들어 극중 모리스 베자르의 <볼거리>, 수중 발레 그리고 프레드와 진저의 텁 단 스는 이 작품뿐만 아니라 여러 예술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의미를 쌓아 온 요소들입니다. 다만 <카페 뮐러>는 영화와는 큰 관련 없이 오마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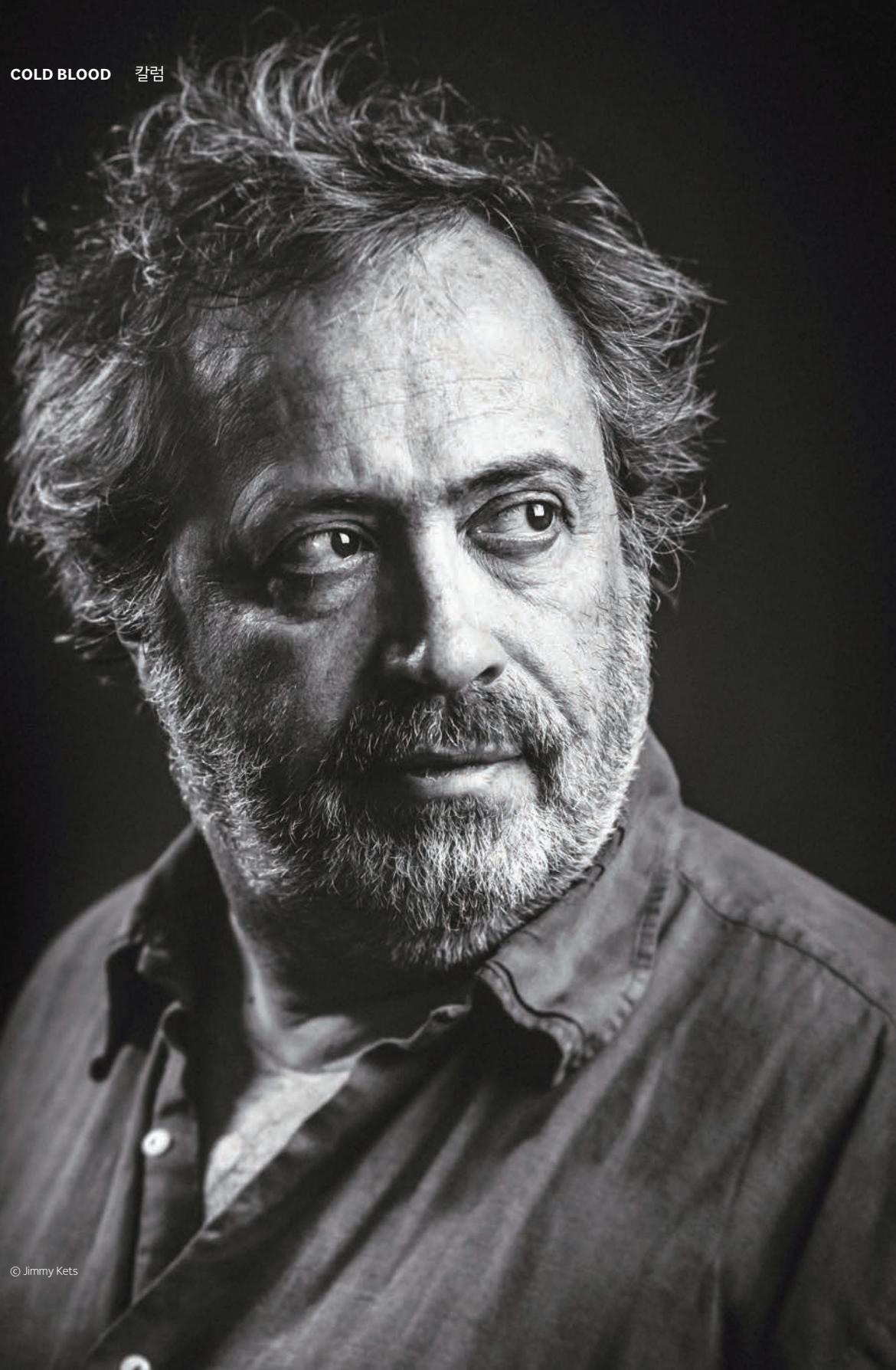
매 장면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놀랐습니다. 안무와 미니어처, 특수효과와 조명, 이를 짹는 카메라까지 수많은 스태프들이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호흡으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방식으로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창작 과정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연극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리허설 초반에는 누구도 정확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3~4개월에 걸쳐 팀원 모두가 다양한 가능성은 시도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점차 몇 가지 장면과 모티프들이 드러나기 시

작하죠. 영화 작업과 비교할 때 이 프로젝트의 창작 과정은 훨씬 더 집단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영역을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기여하곤 합니다. 음향 엔지니어가 세트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세트 디자이너가 장면을 제안하기도 하고, 무용수는 조명에 대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역할이 서로 뒤섞인 상태에서, 우리는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와 비슷한 진지함과 집중력으로 작업에 임하고 합니다.

새로 계획하거나 준비 중인 공연이나 영화가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꿈’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늘 그렇듯 대본을 쓰는 데에는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공연 작업 과는 다르게 제 영화 작업에서는 대본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본이 탄탄하면 이후의 감독 작업은 훨씬 수월해지니까요.



© Jimmy Kets

자코 반 도마엘의 작품 세계

비관을 낙관으로 바꾸는 무엇... 인생은 슬프지만 끝내 아름답다

노인 토토는 불우하다. 그는 이웃 부잣집 동갑내기 알프레드와 삶이 바뀌었다고 믿는다. 둘이 아기였을 때 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생이 뒤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아버지가 알프레드 아버지 부탁으로 비행기 조종간을 잡았다가 실종되자 알프레드에 대한 미움은 더 깊어진다. 토토는 사랑하는 누나를 알프레드 때문에 잃었다고 여기기도 한다. 토토의 불행은 이어진다. 토토는 다 알프레드 탓이라 생각한다.

외롭고 가난한 노인으로 회한의 삶을 돌아보니 행의 연속 속에 삶을 이어 간다. 두 번째 장편 영화 <제8요일>¹⁹⁹⁶의 등장인물도 마찬가지다. 중 은 알프레드를 죽이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알프레드는 토토의 인생을 오히려 부러워한다. 돈 때 년 남성 아리는 직장에서는 인정받는 일중독자 이나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다. 아리가 우연히 마 문에 암살 위험에 놓여 있어서다. 토토는 처음이 자 마지막으로 알프레드가 돼 살기로 한다. 그는 인생 막바지에 이르러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 죽은 후 재가 돼 하늘에 뿌려진 후 즐거움에 겨워 한껏 웃는다. 토토의 삶은 불행했을까, 아니면 행복했을까.

그의 영화 속 주인공들은 불우하다

벨기에의 자코 반 도마엘(Jaco van Dormael, 1957-) 감독은 장편 데뷔작 <토토의 천국>¹⁹⁹¹부터 인생의 불가해를 다룬다. 그의 영화 속 주인공들은 불우하다. 삶을 비관해도 될 만한 환경에서 자라고 불



주치는 다운증후군 청년 조지는 외톨이다. 어머니를 잃었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지만 두 남자 아리와 조지가 만나 빛어내는 감정은 불행보다 행복이 많다. 아리는 조지를 매개로 가족과 화합한다. 조지는 스스로 삶을 마친다. <제8요일>의 끝은 해피 엔딩일까, 새드 엔딩일까. 그의 세 번째 영화 <미스터 노바디>²⁰⁰⁹는 어딘가. 주인공 니모는 118세 할아버지다. 시대는 2092년, 유전 공학의 발달로 더 이상 죽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영세를 누리는 시대에 니모는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가 기자에게 자신의 삶을 털어놓는다. 그의 과거는 복잡하다. 세 여자와 각기 달리 결혼해 세 가지 삶을 살았다고 하나 믿기 어렵다. 그가 인생에서 한 선택들을 후회해서 한다. 또는 니모처럼 말년에 병상에서 삶이라는 만약을 적용해 상상해 본 삶들일 수 있다. 수수께 시련을 음미하거나 에아처럼 불우한 환경에 굴끼 같은 회고담을 남기고 니모는 미소 지으며 숨 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절대자 아울 거둔다. 인류 역사상 마지막으로 죽게 된 그는 버지에게 맞선다. 도마엘 감독은 인생은 슬프고 왜 웃었을까, 후회로 점철됐을 만한 삶을 돌아보 불행해도 역설적으로 종국엔 아름답고 행복하다며 그는 왜 울지 않았을까.

도마엘의 영화에 있는 것: 유머, 초현실, 음악

네 번째 영화 <이웃집에 신이 산다>²⁰¹⁵에서는 신의 딸 에아가 스크린 중심에 선다. 사람들의 생활에 하지 말라는 말을 좋아한다고 한다). 로병사를 관장하는 에아의 아버지는 가정 폭력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르는 못된 가부장이다. 에아가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면서 영화는 본 궤도에 오른다.

도마엘 감독 영화 속 인물들은 불우하다고 하나 그들은 절망의 늪에 빠져 살지 않는다. 노년의 토토처럼 인생 막바지에 삶의 비의를 깨닫거나 아리와 조지처럼 우정으로 삶의 환희를 되찾기도

한다. 또는 니모처럼 말년에 병상에서 삶이라는 페소아가 한 “자신의 인생을 살되, 인생이 자신을 지나고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달리 겠지만(도마엘 감독은 포르투갈 시인 페르난도 페소아가 한 “자신의 인생을 살되, 인생이 자신을 살게 하지 말라”는 말을 좋아한다고 한다). 도마엘 감독이 영화 속에서 비관의 정조를 낙관의 정서로 바꾸는 도구는 유머와 초현실과 음악이다. 그의 영화에서는 슬픔이 스크린을 지배하려 할 때 엉뚱한 웃음이 등장하고는 한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진 장면이 종종 화면을 장식하기도 한다. 음악은 감미롭거나 활기찬 때가 많다. 묵직한 튜바 음이 긍정의 신호를 내뿜거나 발랄한 팝송이 귓가를 맴돈다.



영화 <제8요일>

복잡다단한 삶...

그래도 살 만하고 희망은 있다

도마엘 감독이 연출한 장편 영화는 4편이다. 세계 영화계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온 이로선 과작 태국 영화 <시티즌 독>²⁰⁰⁴이었다. 그가 <시티즌 묵작이다. 그는 <토토의 천국>으로 칸 국제영화 독>을 한국 영화로 착각해 부천을 방문한 것으로 황금카메라상(장편 영화 연출이 2회 이하인 칸 영화제 초청 모든 감독을 대상으로 함)을 수상했고, <제8요일>로는 다니엘 오토이유와 패스칼 뒤켄에게 남자배우상을 안겼다. <미스터 노바디>는 베니스 국제영화제 기술공현상을 받았으며 <이웃집에 신이 산다>는 칸 영화제 감독주간에 초청됐다. 벨기에 안팎에서 투자받기에 충분한 이력이다.

도마엘 감독이 과작인 건 그가 숙성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어서다. <미스터 노바디>만 해도 <제8요일> 이후 13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었다. 그는 <미스터 노바디>의 시나리오 작업에만 7년을 들였다. 그의 영화들이 희로애락의 감정을 단순하게 전하는 것을 넘어 삶의 복합적인 느낌을 장면마다 표현해 낼 수 있는 건 아마 오랜 시간 생각을 다듬고 다듬은 결과가 아닐까.

도마엘 감독은 2010년 <미스터 노바디>로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찾았을 때 기자를 만나 적은 작품 수에 대해 ‘자학 개그’를 하기도 했다. “아마 나중에 손주들에게 제 영화를 다 보여 주는데 하루면 충분할 겁니다. ‘할아버지는 도대체 뭘 했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을 듯해요.”

도마엘 감독이 2010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에피소드 하나 더. 그는 “딸이 추천해 준 한국영화를 본 후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며

“부천판타스틱영화제 초청을 흔쾌히 받아들인 이유”라고 밝혔다. 도마엘 감독은 영화 제목을 기예하지는 못했다. 그가 말한 내용으로 추정컨대 묵작이다. 그는 <토토의 천국>으로 칸 국제영화 독>을 한국 영화로 착각해 부천을 방문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이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때로 인생은 오해와 착각과 망상으로 불행이 행운으로 변환될 수도 있으니까. 도마엘 감독의 영화처럼 말이다. 그가 태국 영화를 한국 영화로 잘못 알고 서 한국을 찾은 후 여러 인연들을 맺고 즐거움을 만끽했다면 불운인가, 행운인가.

도마엘 감독은 무용과 연극, 영화 등 여러 요소가 뒤섞인 이색 공연 <콜드 블러드>를 12월 13~14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선보인다. 2014년 <키스 앤 크라이> 이후 10년 만에 한국 무대에 오르는 도마엘 감독의 새 공연으로, <키스 앤 크라이>처럼 아내인 안무가 미리오 작업에만 7년을 들였다. 그의 영화들이 희셀 안느 드 메이와 함께 꾸민 무대다. 섬세한 손가락 움직임으로 인생을 묘사하게 될 <콜드 블러드>는 국내 관객들에게 어떤 감정들을 불러낼까. 확실한 건 한 단어로 콕 집어 표현해 낼 수 없는 복잡다단한 정서가 관객들 마음에 새겨질 거란 점이다.

질

글 라제기 한국일보 영화 전문기자
1999년 한국일보 입사 후 편집부와 사회부, 국제부 등을 거치며 엔터테인먼트 팀장과 문화부장, 신문에서디너로 일했다. 2004년부터 영화를 취재해 왔으며, 영국 서식스대 대학원에서 영화학을 공부했다. 저서『질문하는 영화들』『말을 거는 영화들』, 역서『할리우드 전복자들』로 영화를 사랑하는 독자들과 소통하는 한편, 뉴스레터『영화로운』으로 매주 구독자들을 만나고 있다.



A SHOW BY MICHÈLE ANNE DE MEY, JACO VAN DORMAEL, COLLECTIF KISS AND CRY
TEXTS THOMAS GUNZIG

자코 반 도마엘 감독 연출
무대에서 만들어지는 한 편의 영화

B C L O L O D

콜드

블러드

내레이션 유지태

2024년 12월 13일(금) 오후 7:30 ● 12월 14일(토) 오후 3:00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 예매 1544-8117 ● 문의 031-783-8000

20
2004-2024

© Julien Lambert

성남문화재단

미리보기 1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미리보기 2

마카오 오페스트라, 리오 쿠오크만 & 김계희

미리보기 3

오! 마이 패밀리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보기 4

프리다 칼로 레플리카전 'Viva Frida Kahlo'

다시보기 1

이자벨 위페르의 <메리 스튜어트>

다시보기 2

마티아스 괴르네 & 마리아 조앙 피레스

<겨울 나그네>

SKETCH

2024 성남페스티벌 현장을 가다

◀

■

■

P R E
V I E W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천재적 본능의 성숙

글 허서현 월간 <객석> 기자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시 | 12월 10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 031-783-8000

사라 장의 바이올린 연주는 국내 관객에게 각별하다. 1990년대, 10대의 동양 소녀가 국제 무대에서 받은 인정은 문화예술계의 소중한 기록이자 자랑이었기 때문. 지난 몇 년간 국내 공연에서 연이은 매진을 이루며 관객의 사랑을 받아 온 바이올리ニ스트 사라 장이 오는 12월 10일, 19년 만에 성남을 찾는다.

계 음악계를 떠들썩하게 할 만한 등장이었다. 이른 데뷔로 인해 이제 막 40대인 바이올리ニ스트가 벌써 데뷔 30주년을 넘겼다. 그사이 협연과 실내악 연주를 통해 그녀와 함께한 연주자들도 더욱 폭넓어졌다. 2007년, 오르페우스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발매한 비발디의 <사계> 음반은 사라 장 디스코그래피의 정점으로 평가받았다. EMI 레이블의 스무 번째 음반으로 쿠르트 마주어/드레스덴 필과 브람스, 브루흐의 바이올린

이번 공연에서는 피아니스트 홀리오 엘리자드가 협주곡을 발매하며 호평을 받았고, 사이먼 래틀·함께한다. 예술성은 물론 실내악 연주자로도 많을린 데이비스 등과도 함께 음반을 발매했다. 은 사랑을 받는 그는, 2013년부터 사라 장의 연주 파트너로 함께하며 2019년 내한 당시에도 긴밀한 호흡을 선보인 바 있다. 무엇보다, 이번 공연은 사라 장이 2019년 이후 5년 만에 한국에서 갖는 리사이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실내악이나 협연 공연보다는 더 깊이 사라 장의 음악적 해석을 감상할 기회다. 천재적 본능을 지녔던 그녀의 연주가 어떤 성숙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화제의 천재 소녀였던 사라 장의 일화는 1990년부터 시작된다. 그녀는 8세에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뉴욕 필과 협연하며 데뷔했다. 1992년에 열한 살 사라 장은 고작 4분의 1 크기의 바이올린으로 EMI 레이블에서 세계 최연소 녹음 기록을 세운다. 이듬해 두 번째 녹음에서도 바이올린은 2분의 1 크기였다. 베를린 필에 데뷔한 것은 1994년, 에이버리 피셔 캐리어 그랜트 상을 받은 것은 1995년이었으니 몇 년 사이 국내는 물론 세계 음악계를 떠들썩하게 할 만한 등장이었다. 이른 데뷔로 인해 이제 막 40대인 바이올리ニ스트가 벌써 데뷔 30주년을 넘겼다. 그사이 협연과 실내악 연주를 통해 그녀와 함께한 연주자들도 더욱 폭넓어졌다. 2007년, 오르페우스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발매한 비발디의 <사계> 음반은 사라 장 디스코그래피의 정점으로 평가받았다. EMI 레이블의 스무 번째 음반으로 쿠르트 마주어/드레스덴 필과 브람스, 브루흐의 바이올린 이번 리사이틀이 반가운 점은, 공연의 레퍼토리 주제를 통해 그간 거장들과 쌓아 온 음악적 시야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공연은 브람스의 <F.A.E. 소나타> 중 스케르초로 시작해 바이올린 소나타 3번으로 이어진다. 열정적 낭만으로 가득한 사라 장의 비르투오시티의 정점에 있는 작품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쿠르트 마주어와의 음악적 호흡으로 인해 그녀 안에 내재한 브람스 음악의 세계를 맛볼 수도 있다.

공연의 마지막 작품인 프로코피예프 바이올린 소나타 2번은 고전의 형식 속에 빛나는 현대적 바이올린의 경쾌함이 돋보인다. 원래는 플루트 소나타로 작곡된 것을 전설적 바이올리ニ스트 소나타로 작곡된 것을 전설적 바이올리ニ스트 니콜라우스 브루흐가 위해 프로코피예프가 편곡한 작품이다. “사라 장은 경이롭다”던 <뉴욕 타임스>의 표현처럼, 언제나 힘찬 음색으로 유려함을 선보이는 그녀의 연주는 다가올 연말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를 지닌 공연이 될 것이다.

PRE
VIEW

마카오 오케스트라, 리오 쿠오크만 & 김계희

동서양의 융합을 선보이다

글 정소연 월간 <스트라드> 수석기자

마카오는 중국의 특별 행정구에 위치하지만, 오랜 시간 포르투갈의 지배 아래 서양 문화를 깊숙이 흡수한 독특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동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마카오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인 마카오 오케스트라가 11년 만에 우리나라 청중과 만날 준비를 마쳤다.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우승자인 바이올리니스트 김계희가 들려주는 차이콥스키 협주곡 역시 기대되는 프로그램이다.



지휘자 리오 쿠오크만
바이올리니스트 김계희



마카오 오케스트라, 리오 쿠오크만 & 김계희

일시 | 12월 1일(일) 오후 5시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 031-783-8000

마카오 오케스트라는 1983년 마카오 체임버 오케스트라로 창단, 2001년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문화부 주도하에 마카오 오케스트라로 규모를 키웠다. 이후 플라시도 도밍고, 크리스티안 지메르만, 랑랑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와도 인연이 깊다. 지휘자로도 활동하며 경기필을 이끌고 있는 김선욱이 마카오 오케스트라의 포디움에 올랐고 2025년에도 플루티스트 최나경, 소프라노 이명주와 함께 현지 무대에 선다. 또 2025년 7월에는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협연하며 시즌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마카오 오케스트라는 리오 쿠오크만이 음악 감독 겸 수석지휘자로 악단을 이끌고 있다. 리오 쿠오크만은 마카오 국제 음악 축제의 프로그램

감독과 더불어 슬로베니아 방송교향악단 상임지휘자,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주지휘자로도



© Macao Orchestra

활동하며 떠오르는 지휘자로 급부상 중이다. 또 등장하는 연주자가 있는 반면 꾸준히 문을 두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역사상 최초로 중국 출신 부지휘자로도 임명되며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 가고 있다.

마카오 오케스트라는 이번 내한에서 램반징 ^{Bun-ching Lam, 1954~}의 <팡파레>와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그리고 <백조의 호수> 모음곡을 들려준다. 먼저 마카오에서 태어난 작곡가 램반징의 <팡파레>는 마카오 반한 위원회가 마카오의 중국 반한을 기념하기 위해 의뢰한 곡으로, 마카오 사람들을 위한 작품답게 오케스트라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차이콥스키의 두 작품을 통해서는 감정의 깊이, 음악의 색채, 리듬과 텍스처의 변화를 섬세하게 다루며 오케스트라가 가진 음악적인 역량을 십분 풀어낼 예정이다.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를 협연할 바이올리니스트는 김계희다. 반짝하고 혜성처럼

리고 길을 만들어 나가는 연주자가 있는데 김계희는 바로 후자에 해당한다. 제오르제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로 바이올린 부문 우승과 두 개의 특별상을 수상한 김계희는 이후 다수의 콩쿠르에서 수상하며 이름을 알리 나갔고, 2023년 마침내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세계 무대에 우뚝 섰다. 차이콥스키 콩쿠르 우승자가 들려주는 차이콥스키 협주곡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는 무대라는 점에서 이번 협연은 더욱 기대를 모운다.

마카오 오케스트라는 동서양의 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번 내한 공연에서 그들의 예술적 역량을 온전히 펼칠 것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며 활발히 활동할 마카오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통해, 마카오의 문

화와 음악적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기대해 본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은 음악이 안겨 주는 따뜻한 위로가 그 어느 때보다 어울리는 계절이다. 세대를 초월해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음악회 <오! 마이 패밀리 메리 크리스마스>가 12월 20일과 21일, 두 차례 성남아트센터 양상불시어터에서 관객에게 아름다운 음악 선물을 선사한다.

<오! 마이 패밀리 크리스마스> 공연은 '별빛 아래 라토리오' 중 '시온아 준비하라', <사냥 칸타타, 래 크리스마스>와 '처음 만나는 바로크 악기' 두 가지 주제로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12월 20일은 '별빛 아래 크리스마스'다. 별에게 소원을 빙 소녀에게 일어난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여정을 콘셉트로 꿈처럼 아름다운 무대를 꾸민다. '꿈과 소원' '사랑과 소중함' '사랑과 기적' 등의 부제 아래 어울리는 곡들을 정성껏 골랐다.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부터 캐럴 메들리, 애니메이션 주제가까지 크리스마스와 겨울 시즌 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바리톤 김성결, 인천시향 바이올린 수석 장지영 등 국내 정상의 연주자들이 들려준다. 서울비르투오지챔버오케스트라 총괄감독을 역임한 이정민이 해설가로 출연, 음악 감상의 친절한 길잡이로 함께한다.

12월 21일 토요일 저녁의 주제는 '처음 만나는 바로크 악기'다. 고풍스러운 바로크 악기야말로 크리스마스에 더없이 어울리는 주인공이 아닐까. 바로크 시대, 프랑스 교회 음악 발전의 공신이었던 미셸 드 랄랑드의 <크리스마스를 위한 심포니>, 코렐리의 <크리스마스 밤을 위한 콘체르토 그로소>,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

라토리오> 중 '시온아 준비하라', <사냥 칸타타, BWV208> 중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등 저절로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보석 같은 음악들이 가득하다. 마지막의 크리스마스 민요와 캐럴 메들리까지, 유럽 어딘가의 성당에서 크리스마스 음악을 맞이하는 느낌이 총만할 것으로 기대된다. 옛 음악을 당대의 음악 언어로 되살리고 재해석하는 국내 대표 바로크 양상불 알테 무지크 서울(음악감독 강효정)과 바로크 음악 연주자들이 함께 무대에 선다.



오! 마이 패밀리 메리 크리스마스
일시 | 12월 20일(금) 오후 7시 30분/12월 21일(토) 오후 5시
장소 | 성남아트센터 양상불시어터
문의 | 031-783-8000



프리다 칼로 레플리카전 'Viva Frida Kahlo' 아름답지만 처절했던 삶의 기록

글 황희경 연합뉴스 문화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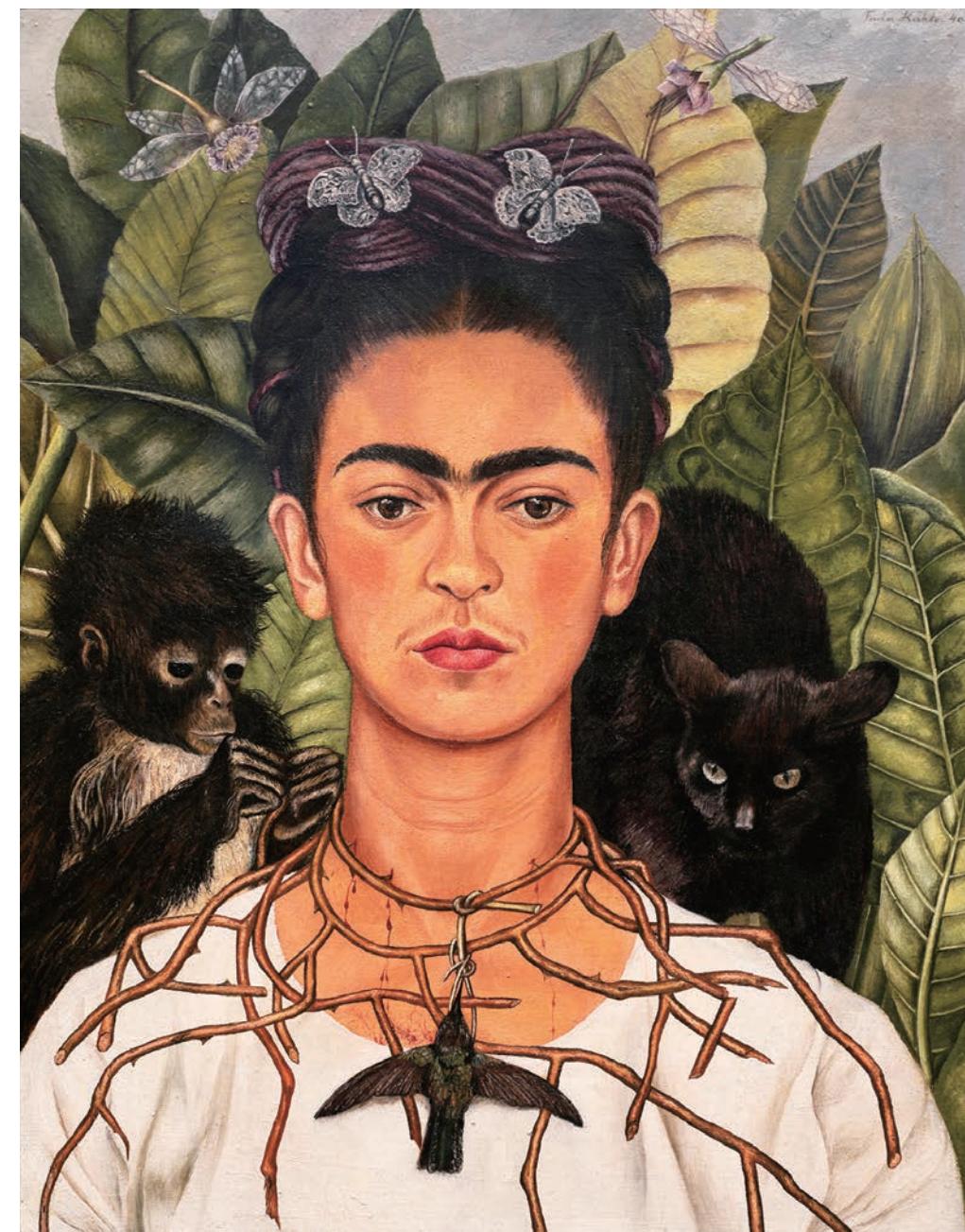
멕시코를 대표하는 여성 화가 프리다 칼로의 대표작들을 레플리카로 만날 수 있는 <프리다 칼로 레플리카전: Viva Frida Kahlo>가 12월 13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성남큐브미술관 기획 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칼로가 평생에 걸쳐 남긴 80여 점의 기록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다.



벨벳 드레스를 입은 자화상
Self-portrait wearing a velvet dress, 1926,
Oil on canvas, 79.5 x 59.9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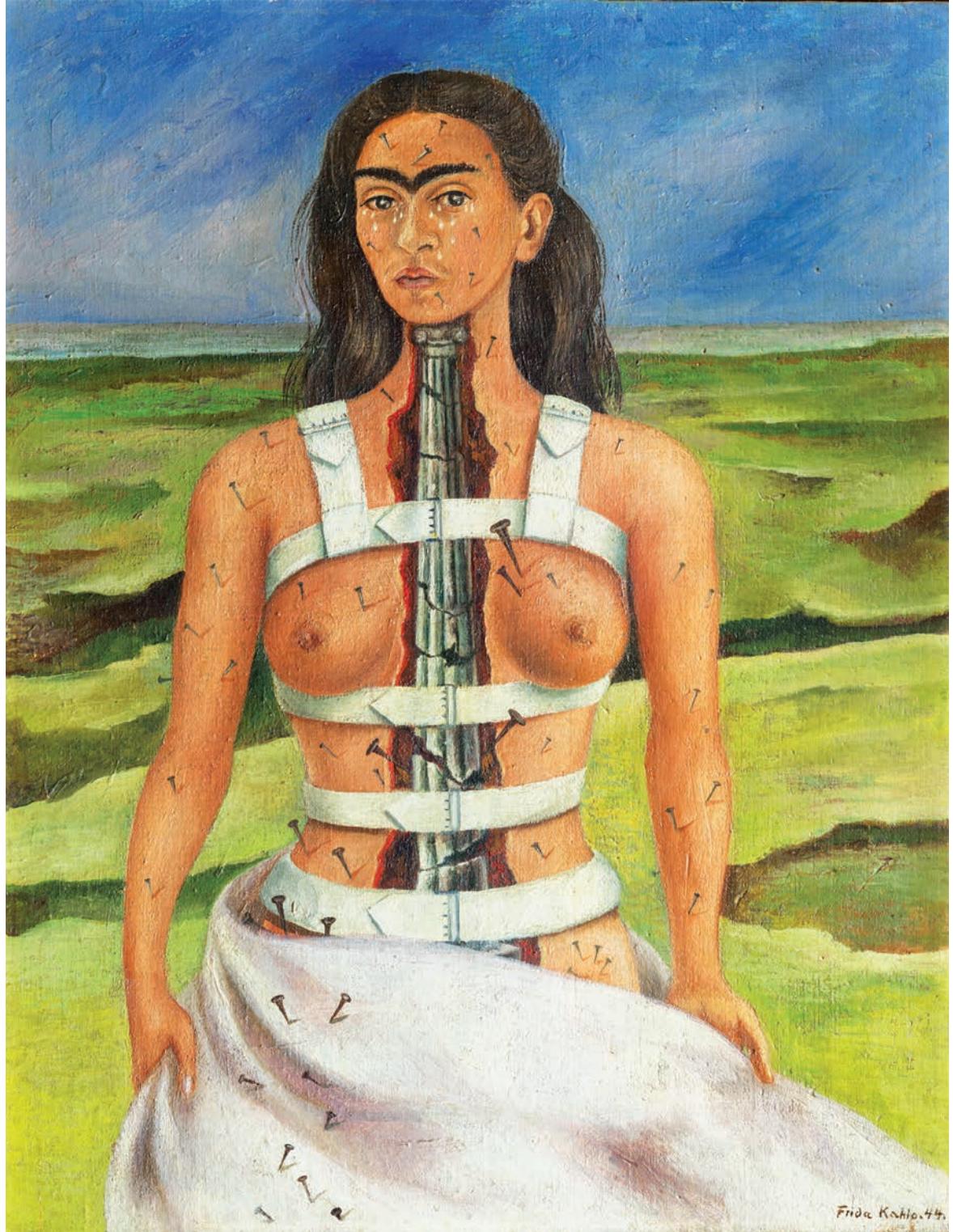
멕시코를 대표하는 여성 화가 프리다 칼로^{1907~1954}는 절단하기에 이른다. 육신의 고통과 함께 정신적 고통도 컸다. 역시 멕시코의 미술 거장이었던 남자친구 편 디에고 리베라^{1886~1957}는 예술적 동지이기도 했지만, 끊임없는 외도로 칼로를 또 다른 고통 속에 몰아넣은 장본인이기도 하다. 심신의 고통으로 인한 좌절 속에서도 칼로는 삶에 대한 의지를 했지만, 끊임없는 외도로 칼로를 또 다른 고통 속에 몰아넣은 장본인이기도 하다. 심신의 고통으로 인한 좌절 속에서도 칼로는 삶에 대한 의지를 않았다.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던 그는 1925년 버스 교통사고로 척추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이후 30번 이상 수술을 받아야 했다. 또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에는 결국 오른쪽 다리마저

미술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됐다.



가시 목걸이를 한 자화상
Self-portrait with thorn necklace and hummingbird, 1940,
Oil on canvas mounted on board, 62.5 x 48.0 cm

© 2017 Banco de México Diego Rivera Frida Kahlo Museums Trust, Mexico, D.F.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Contributor: Courtesy Harry Ransom Center at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Frida Kahlo, 44.

칼로가 남긴 평생의 예술을 돌아보다

성남문화재단 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12월 13일 개막하는 프리다 칼로의 레플리카전 'Viva Frida Kahlo'는 칼로 내면의 고통이 반영된 작품들을 레플리카로 살피는 전시다.

칼로는 작업 초기부터 자화상을 많이 그렸다. 처음에는 서구 미술의 영향도 드러나지만 점차 멕시코 전통의 요소가 반영되기 시작한다. 중기에

는 왕성하게 그림을 그리며 많은 작품을 쏟아 냈다. 환상적인 요소가 강해지는 이 시기의 자화상에는 앵무새나 개, 원숭이 같은 여러 동물이 등장

하기도 한다. 1940년 전후 해외에서 여러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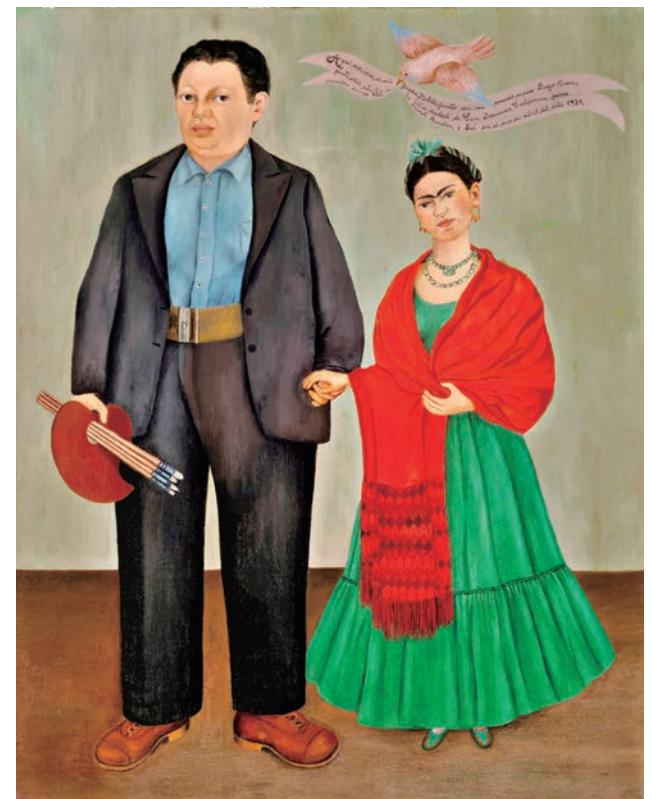
을 열고 멕시코에서도 인지도를 확고히 하던 그는 1944년 건강 악화로 철제 코르셋을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병세가 악화한 1950년대에는

신체적 고통을 표현한 작품들과 정물화를 많이 그렸다. 사회 비판에도 적극적이었던 그는 1954년 한 시위에 참여했다가 폐렴으로 결국 세상을 떠났다.

전시에 소개되는 작품들은 모두 레플리카(replica)다. 레플리카는 작가가 실제 그린 원본이 아닌, 원본의 복제품을 일컫는다. 작품 보존이나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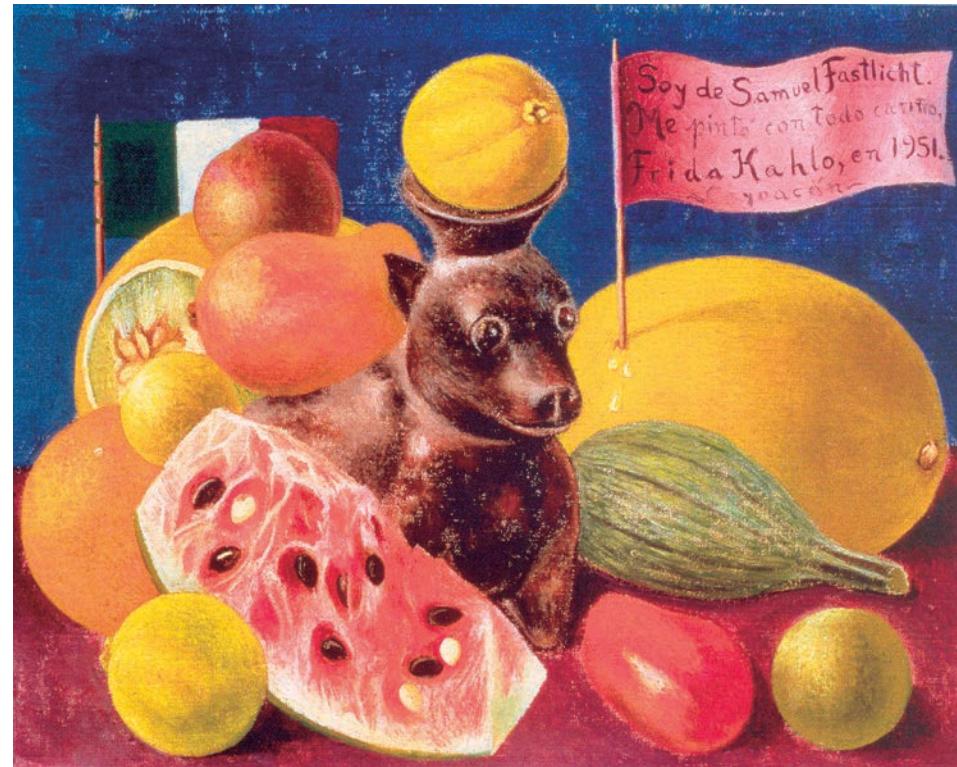
☞
부러진 척추 The Broken Column,
1944, Oil on canvas, 39.8 x 30.5 cm

☞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
Frida and Diego Rivera, 1931, Oil on canvas
100.01 x 78.74 cm
© Banco de Mexico Diego Rivera & Frida Kahlo Museums Trust, Mexico, D.F. /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 Reproducción autorizada por el Instituto Nacional de Bellas Artes y Literatura, 2018.
Albert M. Bender Collection, gift of Albert M. Bender



을 위해 제작되는 것으로, 위작과는 엄연히 구별된다. 당연히 그림은 원화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감상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원화를 보기 위해 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교육적인 목적에서 레플리카가 활용된다. 박물관 등에서는 유물 손상을 막기 위해 레플리카를 제작해 대신 전시하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달로 원화의 크기와 색채, 특유의 봇질 자국까지 정교하게 재현하기도 한다.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대표작들도 모두 접할 수 있다는 게 레플리카 전시의 장점이기도 하다.

전시는 칼로의 주요 작품들을 생애와 작품 경향에 따라 초기와 중기, 말기로 나눠 소개한다. 칼로 하면 떠오르는 1940년작 <가시 목걸이를 한 자화상 Self-portrait with thorn necklace and hummingbird>을 비롯해 리베라와의 결혼이 파경에 이르렀던 1939년에 그린 <두 명의 프리다 The Two Fridas>, 고통받는 자신의 몸을 그린 1944년작 <부러진 척추 The Broken Column>, 마지막 작품 <비바 라 비다 Viva la Vida> 등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칼로의 삶을 담아낸 사진과 칼로가 남긴 일기까지 총 80여 점이 전시된다.



◆

정물 Still life(I am from Samuel Fastlicht), 1951,
Oil on masonite, 28.6 x 35.9 cm

↑

두 명의 프리다 The Two Fridas, 1939 Oil on canvas, 173.5 x 173 cm
© 2018 Banco de México Diego Rivera & Frida Kahlo Museums Trust, Av. 5 de Mayo No. 2, Col. Centro, Del Cuauhtémoc, C.P. 06000, Mexico, City. Reproducción autorizada por el Instituto Nacional de Bellas Artes y Literatura, 2018.

프리다 칼로 레플리카전 'Viva Frida Kahlo'
일시 | 12월 13일(금)~2025년 3월 16일(일)
장소 |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문의 | 031-783-8142~9

이자벨 위페르의 <메리 스튜어트>

R E
V I E W

모노드라마, 그 이상의 무대

글 김주연 연극 평론가

로버트 윌슨 연출, 이자벨 위페르 주연의 연극 <메리 스튜어트>는 배우 한 사람이 오롯이 전체 공연을 이끌어 가는 모노드라마이다. 그러나 지난 11월 1, 2 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무대 위의 배우는 이자벨 위페르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막이 오르는 순간부터 무대 전체를 압도한 채, 시시각각 색채와 밝기, 명도와 채도가 변화하면서 메리 스튜어트의 심리적 상태와 변화를 암시하고, 때로는 읊조리고 때로는 절규하는 이자벨 위페르의 대사 사이사이에 마치 대꾸하듯 끼어들며 극 전체를 거대한 빛의 대화로 이끌어 간 조명이 또 하나의 배우로서 열연을 펼쳤다. 실제로 로버트 윌슨은 예전부터 늘 “나의 무대에서 빛은 하나의 배우로 기능한다”고 말할 만큼 빛과 조명에 예민한 연출가인데, 이번에도 아무런 무대 세트나 소품도 없는 텅 빈 무대를 오로지 빛과 조명으로 가득 채우면서 메리가 놓인 상황과 그녀의 복합적인 감정의 결을 시각적으로 구현해 냈다.



빛과 어둠 사이의 드라마

무대 위에서는 오로지 두 개의 선이 평행선처럼 빛나고 있고, 메리 스튜어트는 두 개의 선 사이에 서 모든 독백과 춤 그리고 움직임을 펼쳐 나간다. 평행하게 이어져 있는 두 개의 선은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사이의 공간일 수도 있고, 내일이면 처형될 메리 스튜어트의 삶과 죽음 사이의 시간 같기도 하다. 또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그녀의 운명과 스스로 선택한 의지 사이의 간격을 상징하기도 하고, 터질 듯한 분노와 슬픔을 쏟아내는 감정선과 차분하게 자신의 생을 돌아보는 이성의 끈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어떤 인간적인 색채도 없이 차갑게 빛나는 두 개의 평행선 사이를 메리는 끊임없이 오가며 드라마를 조명하고 그 아래에 서 있는 배우가 인

마를 쓴다. 그녀는 그 사이에서 고백하고, 편지를 쓰고, 춤을 추고, 때로는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으며, 때로는 거침없이 사선으로 무대를 가로지른다. 마치 그림처럼 꽂꽂하고 처연하게 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가 하면 격정에 사로잡혀 두 팔을 휘두르며 반복되는 문구들을 부르짖기도 한다. 그렇게 그녀는 삶과 죽음, 운명과 의지, 이성과 감정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면서 온몸과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생을 다시 쓰고, 관객으로 하여금 두 개의 끝없는 평행선 사이에 놓인 그녀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또 다른 주인공, 음악

빛과 조명 그리고 그 아래에 서 있는 배우가 인



© Lucie Jansch

물의 감정과 심리를 섬세한 시각적 요소들을 통해 그려 냈다면, 이 공연의 또 하나의 숨은 배우인 음악과 음향은 대본과 대사가 말해 주지 않는 서사를 담당하면서 무대 위에 한 편의 드라마를 청각적으로 구현해 냈다. 이탈리아 작곡가 루도비코 에이나우디가 작곡한 강렬하고 고풍스러운 음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서사성을 간직한 채 드라마를 이끌어 나간 일등 공신이었다. 1장부터 3장까지 끊임없이 쏟아 내는 메리 스튜어트의 대사들이 파편적이고 분열된 언어와 문구들로 반복되는 반면, 장엄하게 시작되어 극도의 긴장감을 만들어 내다가 고요하고 차분하게 가라앉는 음악적 풍경은 주도적으로 드라마를 이끌어 가면서 메리의 삶과 운명 그리고 죽음 앞에 선 그녀의 영혼을 생생한 음향과 극적인 선율로 펼쳐 내었다. 또한 노래하듯, 주문을 걸듯 반복되는 대사들은 그 자체의 의미를 전하기보다는 반복되고 중첩되면서 쌓이는 언어적 리듬을 통해 메리의 내면을 청각적인 풍경으로 그려 냈으며, 녹음된 대사와 배우의 라이브 대사가 대화하듯 언쟁하듯 이어지는 구조는 메리의 과거와 현재를 무대 위에 동시에 재현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다.

단연코 압도적인 위페르의 존재감

한 시간 반 동안 오롯이 홀로 거대한 오페라하우스 무대 공간을 장악한 채, 노래하듯 기도하듯 절규하듯 쏟아지는 수많은 대사를 온몸으로 소화해 내며 극을 이끌어 간 이자벨 위페르는 과연



© Lucie Jansch

그 명성 그대로 압도적인 존재감과 연기력을 확인시킨 명배우였다. 가녀린 체구에서 포효하듯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와 함께, 살짝 비튼 목선과 손짓 하나만으로 수많은 감정을 담아 내는 그녀의 섬세한 표현력에 관객들은 숨소리 하나 없이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보이지 않는 배우로 활약하면서 극의 서사와 심리를 시청각적 요소를 통해 펼쳐 낸 빛과 조명 그리고 음악은 각각의 요소들을 하나의 태피스트리처럼 엮어 내는 로버트 윌슨의 탁월한 감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깊고 선명한 각인을 남겼다.

이자벨 위페르의 <메리 스튜어트>

일시 | 11월 1일(금) 오후 7시 30분, 2일(토) 오후 3시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마티아스 괴르네 & 마리아 조앙 피레스 <겨울 나그네>

고독하기에 아름다웠던 그들의 여정

글 양창섭 음악 칼럼니스트 | 사진 최재우



지난 10월 26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 마티아스 괴르네와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겨울 나그네> 공연은 여러 면에서 음악 애호가들의 기대를 모았다. 무엇보다도 독일 가곡(리트) 해석에 있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괴르네가 오랜만에 한국에서 선보이는 <겨울 나그네> 공연이었다.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

관객의 뜨거운 박수 속에 괴르네와 피レス가 입장했고 이윽고 연주가 시작되었다. 괴르네의 초반 컨디션은 썩 좋지 않았다. 고음은 매끄럽게 올라가지 않았고 음표가 조금만 길어도 목소리가 흔들렸다. 적지 않은 나이 탓도 있는 듯했다. ‘홍수’에서 대개 길게 끄는 1연과 3연의 마지막 고음은 악보대로 짧게 처리했고, ‘회상’의 마지막 “그녀의 집 앞에 가만히 서 있고 싶네” 하는 부분의 고음도 예전의 괴르네라면 더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피レス도 익숙한 레퍼토리가 아닌 듯 ‘풍향계’의 전주를 비롯, 여러 군데에서 실수를 범했다. 피레

1967년생인 마티아스 괴르네는 하이페리언 레이
불에서 녹음한 <겨울 나그네>¹⁹⁹⁶로 극찬받은 이
후 알프레트 브렌델,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등 명
피아니스트와 함께 여러 음반과 영상물을 남겼
다. 특히 깊고 풍부한 저음과 아름답고 서정적인
고음, 원어민만이 구사할 수 있는 딕션, 나이에

따라 깊어지는 해석으로 찬사를 얻었다.

관록이 빛어낸 고독의 깊이

또한 대부분의 주요 리트 가수들이 소수의 가곡 전문 피아니스트와 호흡을 맞춰 음악을 만들어 온 것에 반해 괴르네는 계속 피아니스트를 바꿔 가며 음악적 모험을 계속해 왔다. 음반으로 보면 앞서 언급한 이들을 제외하고도 엘리자베트 레온스카야,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 레이프 오베안스네스, 달릴 트리포노프, 조성진 등과 호흡을 맞추었고, 올해의 캘린더를 들추면 예브게니 키신, 알렉상드르 캉토로프, 마리아 조앙 피レス까지 추가하게 된다. 우리가 이날의 공연에 관심을 가지게 된 또 하나의 이유였다.

초반의 아쉬움과는 달리, 괴르네는 많은 경험을 가진 가수답게 어려움을 헤쳐 나갔다. ‘도깨비불’에서 짧은 시간에 음을 높여 가며 도약하는 대목이나 ‘냇물 위에서’의 힘 있는 마무리, ‘봄 꿈’의 마지막 “내 사랑하는 이 안아 볼 날 언제인가” 같은 대목의 절절한 감정 처리는 관록의 가수임을 증명했다. 괴르네와 피レス는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훨씬 안정적인 해석을 들려주었다. ‘백발’의 감동적인 전주 뒤에 괴르네는 백발이 되어 일찍 죽고 싶은 젊은이의 고뇌를 음역대를 오가면서 가슴 아프게 표현했다. ‘마지막 희망’에서는 가사

처럼 잎이 떨어지는 것을 동작으로 표현하는 여유도 보였다. ‘폭풍우 치는 아침’에서는 전매특허 와도 같은 강력하고 거친 목소리가 “춥고 난폭한 겨울”이 되어 관객들을 강타했다. 마지막 다섯 곡에서는 고통스러운 겨울 여행을 계속하는 화자에게 감정 이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정표’에서는 “쉬지 못하고 쉼을 찾는” 마음을 격렬하게 토해 냈고 음정의 변화가 별로 없는 후반부에서는 행마다 발성법을 바꾸어 가며 죽음으로 가는 화자의 정신 세계를 드러냈다. ‘여인숙’에서 피レス가 섬세하고도 장엄하게 코랄풍 장송 행진곡의 분위기를 자아내자 괴르네는 묘지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자의 마음을 점증하는 볼륨과 공들인 고음으로 표현했다. 허공을 응시하며 ‘환상의 태양’을 보는 듯했던 고

르네는 땅으로 눈을 돌렸다. ‘거리의 악사’의 손 풍금을 의미하는 피レス의 오른손이 펼쳐 낸 사운드는 비현실적인 느낌이라 화자의 환각 상태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괴르네는 특정 단어(“맨발”)를 느리게 부르거나 “아무도 Keiner”를 끊어 불러 고립감을 강조했고 점차 템포를 늦춰 외로운 악사에게 손을 내밀며 곡을 마쳤다. 포르테에 서 피아노로, 피아니시모로 음량을 낮춰 간 피레스는 마지막 음이 끝나자 건반 위로 고개를 한참 숙이고 ‘겨울 여행’을 마무리했다. 그 밖에도 차분한 관객 매너, 정성 들인 프로그램, 가독성 높은 자막 등 여러 면에서 만족스러운 공연이었다.

마티아스 괴르네 & 마리아 조앙 피レス <겨울 나그네>
일시 | 10월 26일(토) 오후 5시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피아니스트 마리아 조앙 피レス





하늘에서 바라본 2024 성남페스티벌 전경

2024 성남페스티벌 현장을 가다

모두의 일상, 축제가 되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과장 | 사진 최재우

첨단기술과 문화예술이 만난 융복합예술축제, 2024 성남페스티벌이 지난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성남시 곳곳에서 펼쳐졌다. 미래도시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아름다운 자연, 풍요로운 문화예술 인프라가 어우러진 도시 성남의 매력을 다채로운 레이어의 예술로 촘촘히 그려 냈던, 9일간의 풍경을 전한다.



성남페스티벌 개막식 무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다문화합창단,
성남을 대표하는 시민들이 함께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
울지대학교에서 열린
피크닉 콘서트 현장



거리마다 예술이 흐르는 도시

매일 오가던 일상 속 거리, 점심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것은 다른 아닌 바흐의 선율. 클래식 연주 단체 베니안이 들려주는 <커피 칸타타>에 길을 지나던 모두가 가만히 귀를 기울인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성남 예술가들의 거리 공연 '성남프린지'는 분당구청 문화의 거리와 판교 콘텐츠 거리, 희망대근린공원 야외공연장 등 성남시 곳곳에서 시민들을 만났다. 때로는 마음을 어루만지는 클래식 음악, 때로는 새로운 자아를 일깨우는 거침없는 몸짓이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예술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대한민국 록의 전설' 전인권과 부활은 울지대학교에서 열린 피크닉 콘서트 무대에서 가을밤을 뜨거운 록 스피릿으로 가득 채웠다.

함께 만드는 축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 모두가 함께 만드는 축제를 꿈꾸는 성남페스티벌은 개막식에도 시민이 하나 되는 축제의 의미를 담았다. 10월 5일(토) 중앙공원 야외 공연장, 파크 콘서트에 앞서 진행된 성남페스티벌 개막식에서는 다양한 세대의 시민예술가들로 구성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다문화합창단의 무대와 더불어, 신상진 성남시장 등 성남을 대표하는 각계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개막을 선포하며 의미를 더했다.



새롭게 단장한 성남아트센터 야외광장은 시민을 향해 활짝 열린 특별한 휴식 공간으로 변신했다. 삼삼오오 모여든 사람들이 뜻자리와 캠핑의 자를 펼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상영회를 감상하고, 야외 조각전의 인증샷도 찍는다. <이무술 집 터 다지는 소리>처럼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성남 고유의 민속 문화가 얼마나 흥겨운지 체험하고, 각국의 예술가들이 펼치는 무용 공연까지 알차게 감상할 수 있었던 새로운 아트 스팟이 등장했다.

송규환, 성남시 분당구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페스티벌이 열린 것을 알고 가족들과 함께 다시 찾아왔어요. 현장 곳곳이 이색적으로 잘 꾸며졌고 여러 가지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어 너무 좋네요. 많은 시민들이 축제에 참여하는 행복한 모습에 함께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입니다.



한·프·호 아티스트 족홍 협업 프로젝트



☞
성남 이무술 집 터
다지기 보존회의
<성남 이무술 집 터
다지는 소리>

⇩
탄천에서 카약 체험을
즐기는 시민들



탄천에서 즐기는 뱃놀이?

탄천에서 배를 탈 수 있다, 없다? 놀랍게도 '있다!' 성남페스티벌 중 2일간 깜짝 이벤트로 진행된 카약 체험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 관람객들에게 특히 큰 인기를 끌었다. 지아(9세), 지환(7세) 남매와 함께 축제를 찾은 권승호(성남시 분당구) 씨는 “카약 체험을 가장 먼저 참여하고 싶었는데 예약 마감이라 아이들이 너무 아쉬워 해서, 내일 다시 탑승에 도전하려 한다”며, “근처에 사는 주민이라 페스티벌 소식을 듣고 얼른 들렀는데, 오늘 카약은 타지 못했어도 축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웃었다.

바둑 두고 춤추고, 로봇의 진화가 끝이 없네

색색의 로봇들이 뉴진스의 '하입보이'에 맞춰 안무를 선보이고, AI 로봇은 사람과 바둑 대결을 펼친다. '성남 테크 플레이' 존과 'AI 이벤트 스테이지' 존은 첨단 기술의 도시 성남의 매력을 담아낸 색다른 프로그램들로 인기를 끌었다. VR 체험, 드론 축구, 로봇 댄스, 3D 프린터 등 4차 산업 디지털 기술 체험 부스, e스포츠게임 선수단의 게임 시연 및 대결 등 다양한 이벤트는 기대 이상의 열기로 어린이와 가족 관객을 사로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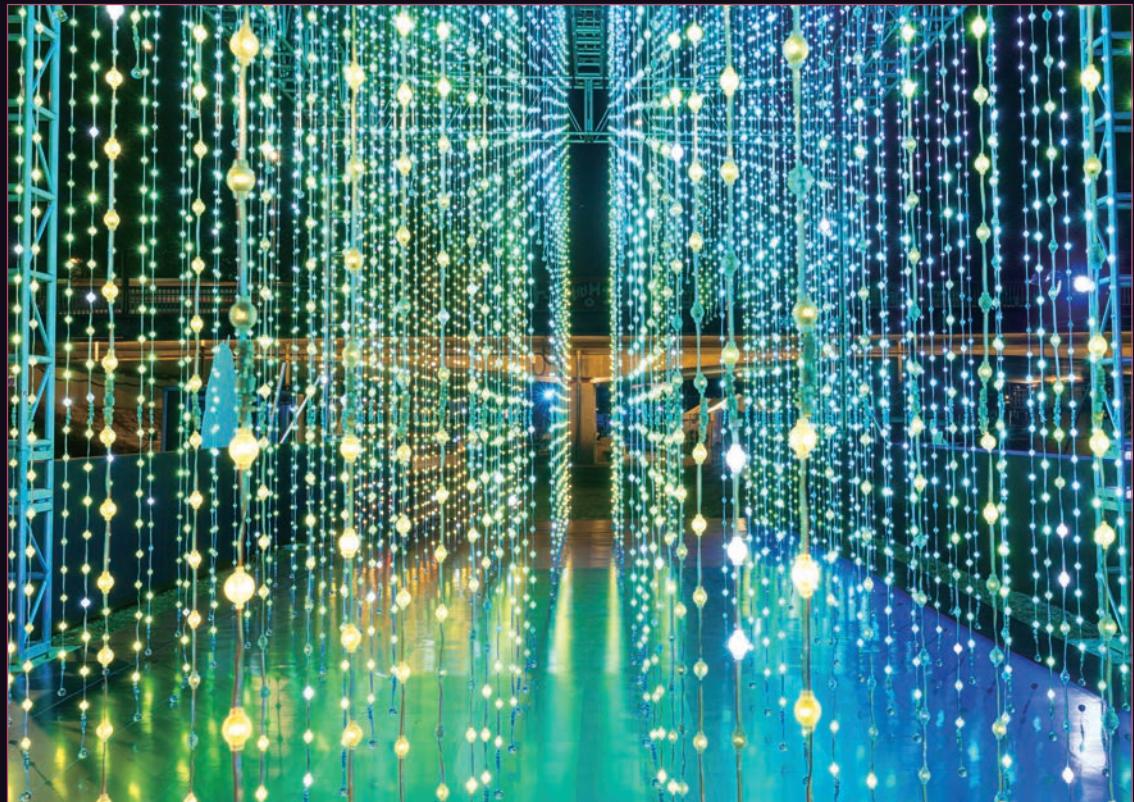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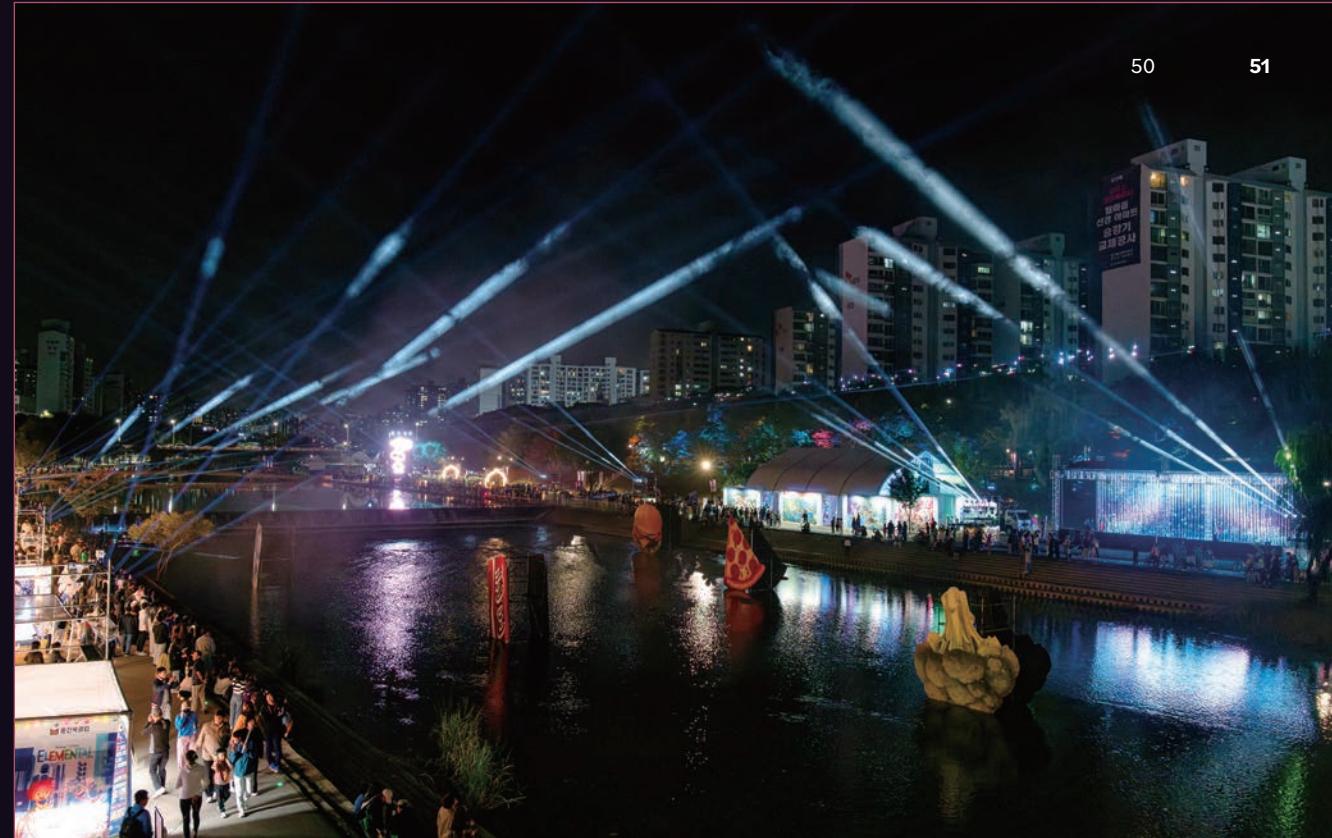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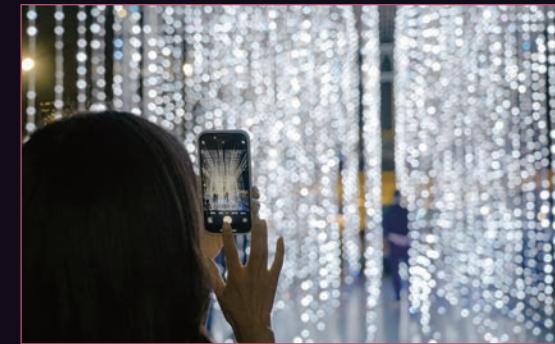
이진향, 성남시 수정구

지난해 축제는 공연을 보지 못해 아쉬웠는데, 올해는 푸드트럭도 많고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이 종류별로 다양해서 나들이하기 좋았어요. AI 로봇과 오목 두기, VR 체험도 색다른 경험이었고, 아이가 좋아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곳곳에서 만나고 인증샷을 찍을 수 있어서 소소한 재미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드론 쇼는 어른인 제 눈에도 너무 신기하고 아름답더라고요. 내년에도 가을이 되면 성남 페스티벌 소식을 기다릴 것 같아요.



김도한, 성남시 분당구

근처에 사는 주민입니다. 작년 이맘때에도 성남페스티벌과 드론 쇼를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나서 와 보게 되었어요. 음악도 흐르고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푸드트럭 종류도 많이 다양해져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어 편리했어요.



탄천에서 만나는 디즈니

성남의 중심을 따라 흐르는 숨결이자 쉼터인 탄천은 축제 기간 동안 자연을 품은 열린 예술 공간으로 변신했다. 특히 월트디즈니코리아와 함께 선보인 메인 제작 콘텐츠 <이머시브 이모션스 Immersive Emotions>는 디즈니의 인기 캐릭터들을 활용한 몰입형 전시와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츠로 세대를 초월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미디어 & 라이트 아트로 환상적인 빛의 스펙트럼을 체험할 수 있는 '기억의 줄기', 자신에게 맞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찾아 주는 AI 활용 미디어아트 '미디어갤러리', 탄천을 유유히 부유하는 거대한 피자 조각과 콜라 캔, 레이저 쇼가 어우러져 포토 존으로 인기 만점이었던 '감정의 스펙트럼' 등, 각각의 존 zone마다 독특한 콘셉트의 아기자기한 재미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피자와 콜라를 집어 든 듯한 인증샷은 방문객들의 필수 코스였다고.

↑
레이저 아트와 라이팅
아트로 빛난
'감정의 스펙트럼'

⇨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했던 미디어아트
'기억의 줄기'



↳
2,200대의 드론이 만들
어낸 드론 라이트 쇼

꿈과 동심을 그려 낸 하늘

축제의 마지막 날인 10월 13일(일) 밤, 금난새 지휘자와 성남시립교향악단의 야외 음악회에 이어 마지막을 장식한 드론 쇼는 성남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였다. <알 라딘> <인어공주> <라이온 킹> <토이스토리> <곰돌이 푸> <겨울왕국> <인사이드 아웃>까지, 어둠을 뚫고 서서히 날아오른 2,200대의 드론이 마법처럼 밤하늘에 그려 낸 캐릭터들은 탄천에 모인 시민들을 사로잡으며 탄성을 이끌어 냈다. 모두의 마음에 오랫동안 기억될 추억을 선사한, 성남페스티벌만의 특별한 작별 인사에 집으로 향하는 시민들의 얼굴마다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는 후문. 축제의 밤은 그렇게 아름다운 여운으로 막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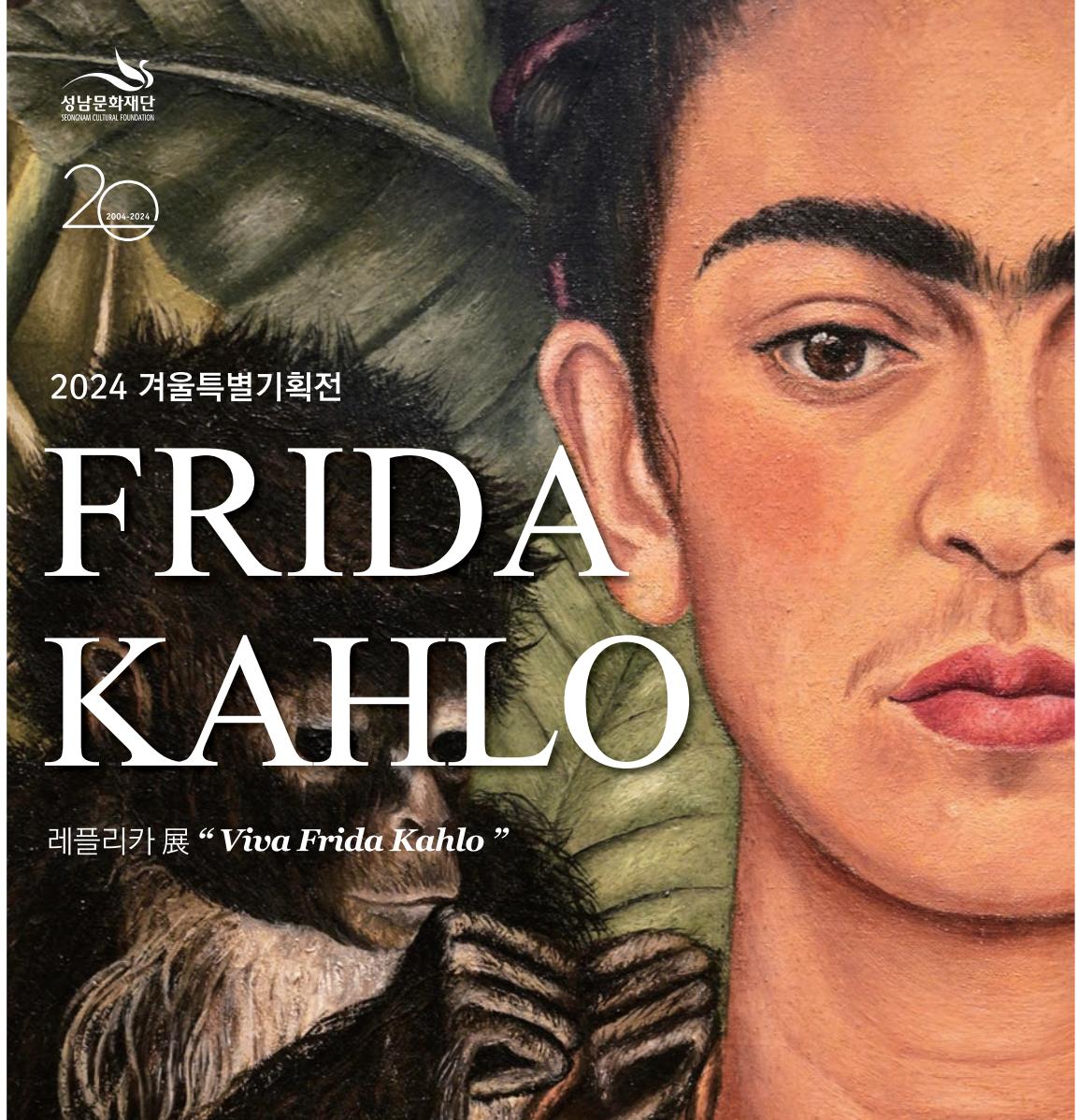
지휘자 금난새와 성남시립교향악단의
성남뮤직페스티벌



2024 겨울특별기획전

FRIDA KAHLO

레플리카 展 “Viva Frida Kahlo”



프리다 칼로 레플리카 展 “Viva Frida Kahlo”

12.13.2024 _ 03.16.2025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성남큐브미술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 매주 월 휴관 | 개관시간 10:00~18:00 문의 |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031.783.8142~9, 031.335.5050

C
U
T
U
R
E
+

영화 속 클래식

영화 <아이언맨>과
살리에리 피아노 협주곡 C장조

트렌드

텍스트와 독서 열풍

생활 속 디자인

활자 진화의 역사

영화 <아이언맨>과 살리에리 피아노 협주곡 C장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글 김성현 조선일보 문화전문기자

지휘자 사이먼 래틀과 바렌보임의 전기를 번역했고『365일 유럽 클래식 기행』『시네마 클래식』『모차르트』『씨네 클래식』등의 저서가 있다. 다양한 강연과 해설 무대는 물론, 유튜브 채널 '클래식 톡'을 통해 클래식과 대중의 간극을 줄여 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진 제공 파라마운트 픽처스

아이언맨 1²⁰⁰⁸, 2²⁰¹⁰, 3²⁰¹³

감독 존 파브로^{1,2}, 세인 블랙³ 출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영웅이 악당이 되기로 작정한 것일까. 최근 <아이언맨>의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악역 '닥터 둄'으로 마블 시리즈에 복귀한다는 외신에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단지 선악이 바뀐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다. 21세기 할리우드 흥행 기록을 작성했던 어벤져스 시리즈의 출발점이 2008년 영화 <아이언맨>이기 때문이다. 파격적 발상의 전환일까, 궁지에 몰린 마블의 마지막 승부수일까.

돌아보면 아이언맨은 마블 시리즈에서도 여러모로 독특한 존재였다. 선천적으로 초능력을 타고난 토르나 후천적 계기를 통해서 갖게 된 캡틴 아메리카와 달리, 아이언맨이 갖고 있는 능력이란 군수 산업을 통해서 축적한 천문학적 재력과 첨단 기술이 전부다. 그 결정체가 아이언맨의 장비와 슈트다.

모든 슈퍼히어로들은 인간과 영웅의 두 가지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아이언맨 역시 마찬가지다. 인간 토니 스타크는 여섯 살에 엔진을 만들고 열일곱 살에 MIT를 졸업한 천재 과학자이자 군수 산업체의 CEO다. 그 회사에서 개발한 첨단 무기들을 통해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아이언맨으로 거듭난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언맨은 이율배반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악의 세력이 사라지는 순간에 군수 산업은 존재 근거를 잃기 때문이다. "평화는 좋은 거지. 난 실직자가 되겠지만"이라는 주인공의 농담은 존재론적 역설을 상기시킨다.

그렇기에 다른 영웅들이 이상주의적이라면 아이언맨은 언제나 현실적인 면모를 보여 준다. 다른 영웅들이 초능력을 지니고서도 선제공격이나 살생을 할 수 없는 윤리적 딜레마를 겪는 반면, 아이언맨은 적의 기지를 초토화시키고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는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파괴자가 됐다"는 뒤늦은 자각에 군수 산업체의 영구 해체를 공언하지만, 실은 아이언맨 자체가 첨단 무기의 사적 전용이다. '마블의 아버지'로 불리는 만화가 스탠 리¹⁹²²⁻²⁰¹⁸의 말처럼 "군산 복합체의 총수라는 팬들에게 외면당할 만한 캐릭터이자 싫어할 만한 인물상을 좋아할 수 밖에 없게 만든 것"이야말로 <아이언맨>의 남다른 역발상이자 차별점이었다.

역설적으로 아이언맨은 어벤져스 시리즈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여 준 인물이기도 했다. 스탠 리의 말처럼 애초에 토니 스타크는 "억만장자 무기 제조업자로 바람둥이인 자선 사업가이면서 추하고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정신세계에서 사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시리즈가 거듭되면서 자유분방한 개인주의자에서 가정을 지키는 가장으로 변모했다. 2019년 <어벤져스: 엔드 게임>에 이르면



안토니오 살리에리의
초상
© Joseph Willibord
Mahler

인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구원자적 면모를 보여 준다. 어쩌면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야말로 이런 양면성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믿기 힘들지만 애초에 아이언맨 역으로 그를 염두에 뒀을 때 찬반 논란이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거듭된 약물 전력이 문제였다. 심지어 그에게 재활 판정을 내렸던 판사도 앞날을 우려했을 만큼 할리우드의 탕아이자 심각한 골칫덩어리였다. 하지만 배우의 인간적 결점이 등장인물의 매력을 강화하는 역설적 경우가 간혹 있는데 <아이언맨>이 그랬다. “난 영웅하고는 거리가 멀죠. 성격 파탄자에다 지금까지 저지른 수많은 잘못들”이라는 영화 대사는 주인공의 고백인지, 배우의 본심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영화 <아이언맨>은 배우 자신의 영민한 자기 패러디이기도 했다. 결국 어벤져스 시리즈를 통해서 다우니 주니어는 할리우드 인기 시리즈의 주인공이자 최고액의 출연료를 받는 스타로 부상했다. 역시 연예인 걱정은 할 필요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영화에 맞춤복처럼 들어맞는 음악 장르가 있다. ‘나쁜 남자’ 아이언맨에게 어울리는 음악은 단연 헤비메탈이다. 미군 호송 차량에 타고서 아프가니스탄의 전장을 질주하는 첫 장면부터 호주의 전설적 헤비메탈 그룹 AC/DC의 ‘Back in Black’이

흐른다. 후속편 <아이언맨 2>에서도 AC/DC의 음악은 영화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면서 시리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정상적 사회 규범에서 빼딱하게 어긋난 주인공의 성격 묘사에 이처럼 어울리는 음악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영화 속의 음악은 헤비메탈이 전부는 아니다. 토니 스타크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정신적 멘토이자 회사의 운영자 역할을 했던 오베디아 스탠(제프 브리지스)은 토니에게 훈계하기 위해 집에 찾아온다.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그가 연주하는 곡이 1773년 안토니오 살리에리의 피아노 협주곡 C장조 가운데 2악장 ‘라르게토 Larghetto’다. 뉴욕타임스 출신의 음악 평론가 해럴드 손버그는 살리에리의 이 협주곡에 대해 “훗날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의 위대한 2악장을 직접적으로 예견하는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살리에리는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불세출의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를 질투한 나머지 살해한 것으로 묘사되는 범인犯人이자 범인凡人의 대명사다. 평소 접할 일이 드문 이 곡을 영화에서 굳이 사용한 이유는 자명하다. 지금 이 곡을 들려주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영화적 암시다. 간혹 영화에서 음악은 이야기 전개보다 한발 앞서서 사건의 단서를 전달하는 언외언言外言의 역할을 한다. 지금도 여전히 살리에리에 대한 그릇된 편견은 반복 재생산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과연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가운데 진짜로 억울한 건 누구일까.



텍스트와 독서 열풍

지금, '텍스트 힙'의 시대

글 유지연 중앙일보 기자

라이프스타일부와 산업부 유통팀, 생활경제팀 등을 거쳐 현재 이노베이션랩 비크닉팀에서 브랜드와 유통 트렌드, 라이프스타일 분야를 취재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소비 문화적 맥락에서 분석하는 것을 좋아한다.



© 문학동네

좀처럼 손에서 떼어 놓을 수 없는 스마트폰이 일상으로 들어오면서부터일까, 어느새 책 읽기는 귀한 습관이 됐다.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약 6명이 1년간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도서를 한 권이라도 읽거나 들은(오디오 북) 성인의 비율을 의미하는 '종합독서율'은 43%에 그쳤다. 첫 조사를 시작한 지난 1994년에는 이 비율이 86.8%에 달했다고 하니 거의 반 토막이 난 셈이다.



성수동의 문구 편집숍
'포인트오브뷰'에
등장한 시집 팝업 공간
'더 포에트리 하우스'.
출판사 '문학동네'와
협업한 이 공간은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 문학동네

그런데 이런 엄혹한 독서 멸종의 시대에 희망적인 이야기가 들려온다. '디지털 원주민'으로 통하는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 사이}에서 책 읽기가 근사한 문화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텍스트 힙' '독서 힙'이라는 신조어로 요약된다. 글자를 뜻하는 '텍스트 text'와 '멋있는' '개성 있는'이라는 뜻의 '힙 hip'을 합친 단어다.

팝업의 성지에 시집의 등장이라

실제로 '힙'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서울 성수동에서 지난 10월 이색적인 책 이벤트가 열렸다. 출판사 '문학동네'와 문구 편집숍 '포인트오브뷰'가 협업해 '더 포에트리 하우스 The Poetry House: 시집'라는 시적인 이름의 공간을 열었다. 창작자들을 위한 문구를 선보이는 포인트오브뷰 한편에 문학동네가 폐낸 시집 '문학동네시인선'이 빼곡하게 꽂힌 시인의 서재가 자리했다. 한국 시를 즐기는 기존 문학동네 독자들은 물론, 성수동의 번화한 거리를 거닐다 쇼윈도에 새겨진 다감한 시구에 이끌리듯 들어

온 젊은 방문객들로 행사장은 연일 북적였다.

특히 시인의 방에서 시인과 직접 만나 시집을 추천받고, 별실로 마련된 시인의 집에서 직접 시구를 적어 보고 시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등의 체험형 이벤트가 좋은 반응을 끌어냈다. 문학동네 관계자에 따르면 일주일간의 팝업 기간 이곳을 찾은 방문객은 만여 명. 성수동의 다른 팝업과 비교한다면 많은 수치는 아닐지 모르지만, 오로지 시집을 보러 온 인원으로는 절대 적지 않다.

책, 최고의 협업 파트너

젊음과 한층 가까워진 책의 징후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요즘 마케팅 업계에서 책은 최고의 협업 도구로 꼽힌다. 특히 이런 흐름은 시류에 빠른 패션 업계에서 두드러진다. 출판사 민음사는 간판 시리즈인 '세계문학전집'을 활용해 패션 브랜드 '예일'과 함께 협업 컬렉션을 냈다. 세계문학전집의 책『위대한 개츠비』미니 북 패키지를 포함한 의류와 책갈피, 엽서 등의 문구를 아우르는 컬렉션이다. 서가에 꽂혀 있을 줄만 알았던 세계문학전집의 재치 넘치는 외도는 지난 2022년에도 이뤄졌다. 당시 마르셀 프루스트의『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주제로 온라인 패션 플랫폼 이큐엘 EQN과 협업한 민음사는 작품에 언급되는 마들렌과 홍차에서 따온 다양한 굿즈(기념

지난 4월, 밀라노 패션
위크에서 진행된
미우미우의 문학 살롱

© miumiu.com



품)를 발매해 호응을 얻었다.

책을 매개로 한 브랜드 행사도 잦다. 지난 6월 미우미우는 서울 성수동에 작은 책 가판대를 열었다. 패션 브랜드의 이벤트이면서도 가방이나 의류가 아니라 책을 전시하고 방문객들에게 선착순으로 책을 나눠 주는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됐다. 팝업의 제목도 '여름의 책 읽기 Summer Reads.' 이날 방문객들은 제인 오스틴의『셜록』, 시빌 라 알레라모의『여성』중 한 권의 원서를 아이스크림과 함께 증정받았다. 미우미우는 지난 4월 열린 밀라노 패션 위크에서도 다른 행사가 아닌 문학 살롱MIU MIU Literary Club을 열고 줌파 라하리·비올라 디 그라도 같은 작가들을 패널로 초대해 낭독 및 대담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핫플' 된 도서전

글자 그대로 '텍스트가 힙'한 현상은 결정적으로 지난 7월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SIBF'에서 목격됐다. 5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도서전에 15만 명이 방문하면서 역대 흥행 기록을 갈아치운 것. 올해로 66회를 맞은 도서전은 본래 출판 업계 관계자들과 일부 책 애호가들을 위한 조용한 행사로 치러지곤 했지만 올해는 달랐다. 입장 대기만 1시간, 수많은 인파가 몰린 도서전은 그야말로 '핫 플레이스 hot place'라는 명소를 방불케 했다.

이런 흐름은 국내에서만 목격되는 현상은 아니다. 지난 2월 영국 가디언은 'Z세대가 책과 도서관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기사로 젊은 세대의 독서 붐을 조명했다. 1997~2012년에 태어난 Z세대들 사이에서 종이책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해 영국에서의 책 판매도 역대 최고 수준(6억6900만 권)을 기록했다는 내용이다.

'독서하는 나', 콘텐츠가 되다

젊은 세대 사이 독서 붐은 모든 유행이 그랬듯 셀럽(유명인) 그리고 소설 미디어 SNS와 함께 자라나고 있다. 한 인터뷰에서 "독서는 정말 섹시하다(Reading is so sexy!)"고 외친 모델 카이아 거버는 Z세대에 자리한 독서에 대한 '선망성'을 상징한다. 국내에서도 걸그룹 르세라핌의 멤버 허윤진의 책 읽기가 소소하게 화제가 됐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틈틈이 책을 읽고 필사를 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고, 출국길 공항에도 책을 들고 나타나 그의 '공항 패션' 대신 '공항 책'이 주목받았다. 이른 바 '허윤진 책 리스트'는 Z세대의 독서 욕망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 독서는 흥행 콘텐츠다. Z세대의 SNS로 통하는 틱톡에서 해시태그(#) '북톡booktok'을 검색하면 수십만 개의 게시물이 뛴다. 젊은 세대들이 자신이 읽은 책을 소개하고 책을 추천하는 콘텐츠를 올리기 때문이다. 인스타그램에도 '북스타그램'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독서 경험을 공유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을 넘어 이를 필사하며 인증샷을 찍어 올리고 있다.

독서가 힙해진 것은 독서 멸종 시대에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독서가 일상의 범주에 흔하게 들어와 있다면 독서가 특별해질 수 있을까. 누구나 책을 읽고 소비한다면 책을 읽는 행위가 '있어 보일 수' 있을까.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나 텍스트보다는 이미지와 영상이 익숙한 Z세대 사이에서 독서와 활자가 주목받는 것은 그것이 희소하기 때문이다.

강윤정 문학동네 편집자는 “젊은 독자들은 단순히 책을 읽는다기보다 서점 투어나 독서 모임, 필사 등 책과 관련된 경험에 더 적극적인 경향이 있다”며 “SNS의 영향으로 독서가 고유하고 개인적인 취미에 머무르기보다 음악이나 패션처럼 나를 드러내고 내 취향을 공유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소연 창비 마케터는 “다독가는 아니더라도 소셜 미디어에 책 사진 하나는 올리고 싶어 하는 욕망이 다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런 독서 힙 현상을 두고 패션 독서 혹은 과시 독서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실에서 출판계는 불황이고 책 판매량은 떨어지는데, 소셜 미디어 계정에 책 사진이나 독서 모임을 하는 인증샷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소셜 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한 독립 서점 주인의 푸념은 이런 과시 독서의 그늘을 보여 준다. 하루 100명이 찾아와도 실제 책을 사는 사람은 몇 되지 않고 전부 사진만 찍고 간다는 얘기다. 실제로 책을 즐기기보다 책을 보는 나, 서점에 가는 나를 증명하고 과시하는 셈이다.

과시라도 좋다, 디지털적 삶 벗어나 즐기는 '독파민'

물론 텍스트 힙 트렌드를 단순히 과시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알짜하다. 책에 대한 관심은 확실히 늘었고, 독서를 향한 호감은 분명히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태생적으로 독서라는 아날로그적 행위와 멀었던 Z세대에게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들에게 독서는 과시라기보다 디지털적 삶에 대한 반동일 수도 있다.

요즘은 영상도 룽풀보다 솟풀이 대세라고 한다. 긴 영상조차 답답해서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는 종이책은 가장 반디지털적인 행위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책에 몰입하는 것을 두고 '독파민'에 빠졌다라는 표현도

☞
인증샷 성지로 유명한
스타필드 쇼핑몰의
별마당 도서관
© shutterst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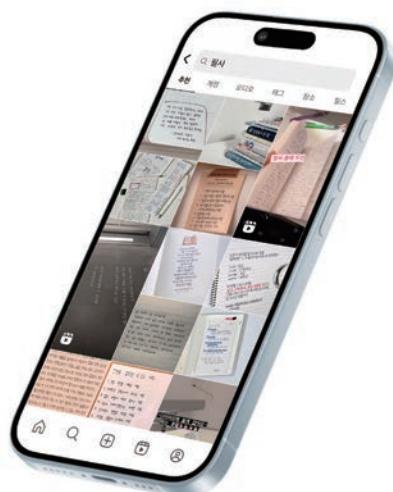
나온다. 독파민은 독서와 도파민을 합친 신조어. 길어도 1분이 채 안 되는 솟풀 영상을 끝없이 스크롤하면서 자극을 찾는 도파민 중독자들에게, 저절로 넘어가지도 않고 몰입해야만 읽히는 책은 과부하에 걸린 뇌를 쉬게 하는 훌륭한 도피처다. 최근 조용한 공간에서 훌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북 카페, 위스키 등을 마시며 책에 몰입할 수 있는 책 바^{bar}가 하나둘 생기는 것도 같은 이유일 터다.

점점 열기를 더하고 있는 독서 힙 트렌드는 지난 10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점에 달했다. 수상 발표 다음 날 아침 교보문고의 텅 빈 매대는 텍스트 힙의 어떤 상징처럼 보였다. 특히 그동안 서점가에서 소외됐던 소설·시·희곡 등 문학 작품의 판매량이 수상자가 발표된 10월 10일부터 일주일간 전년

동기 대비 49.3% 늘었다는 뉴스는 놀랍고도 반가운 소식이었다.

글자보다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책보다는 영상을 주로 소비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면서 얼마 전부터 '문해력'이 화두가 되고 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텍스트 힙은 이렇듯 이미지와 영상 콘텐츠의 흥수 속에서, Z세대들이 역으로 텍스트 기반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멋지고 귀하게 여기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니 과시로서의 독서면 어떻고 보여 주기 위한 책 읽기면 어떠한가. 이렇게라도 독서가 힙해질 수 있다면,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텍스트가 주는 기쁨에 빠져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 아닐까.

☞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SNS에서 '필사'
'booktok' 등의 독서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수많은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글 김신 디자인 저널리스트
홍익대학교 예술학과에서 미술이론을 전공했다. 월간 <미술공예> 기자를 거쳐 월간 <디자인> 기자와 편집장으로 일했다. 2011~13년에 대림미술관 부관장으로 있었다. 2014년부터 칼럼니스트로 독립해 디자인 관련 글을 기고하고 있다.

활자 진화의 역사

왜 다양한 글꼴 디자인이 필요한가



FIGGINS
ANTIQUE

↑
슬랩 세리프는 획의
모든 굵기가 일정한
글꼴이다

▷
모던 로마체는 기존의
로마체보다 획의 대비가
크고 세로획과 세리프가
직각으로 만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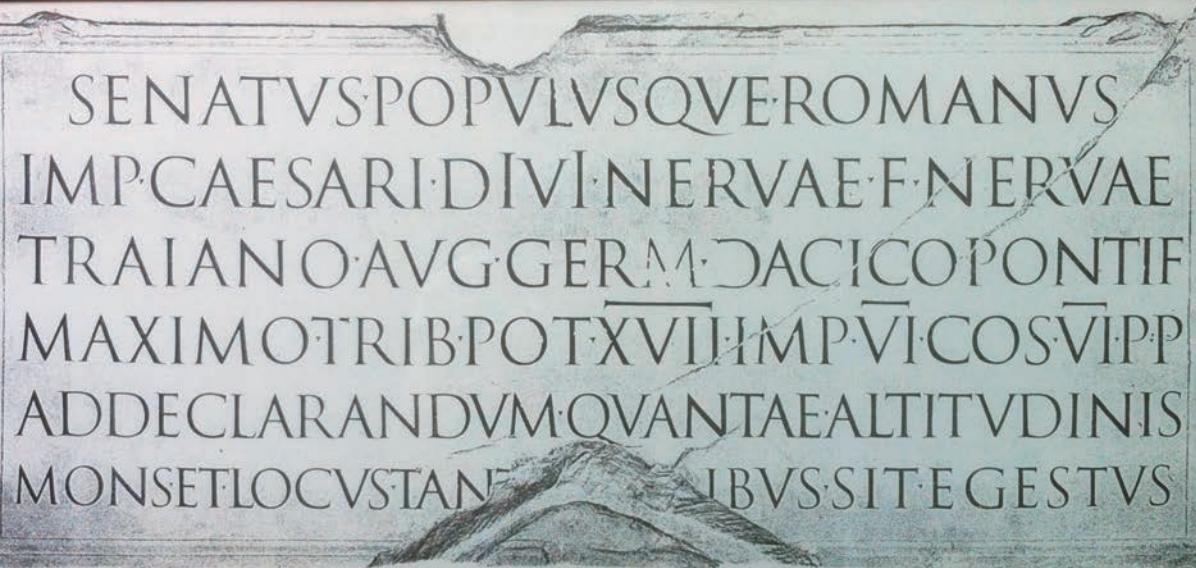
▷
고딕체.
1450년대 태어난 서양
최초의 활자는 바로 이
고딕체로 디자인되었다



금속 활자:
컴퓨터가 태어나기
전에는 글자를 써어
내려면 반드시 물질적인
활자가 필요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수많은 간판과 그 다양한 글자 모양들이 매우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진다. 한국의 간판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하지만 상점 주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글꼴로 간판을 만들고 싶지 않겠는가. 간판의 글자가 이토록 다양해진 것은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활자화된 한글의 글꼴은 대개 본문용이어서 간판에 사용하는 글자는 직접 손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본문용 활자’란 가독성이 높은 평범한 디자인의 글자다. 반면에 ‘간판용 활자’는 좀 더 눈에 띄도록 디자인한다. 서양에서도 산업혁명 이후에야 간판용, 정확히 말해 ‘디스플레이 활자(크고 독특한 형태의 제목용 활자)’들이 태어났다.



고딕체에서 시작된 활자의 진화

어떤 과정을 거쳐 활자가 다양한 디자인으로 꽂을 피우게 됐을까? 활자活字란 손으로 쓰인 것이 아닌, 기계적인 방법으로 글자들을 대량으로 찍어 내기 위한 만든 특정한 모양의 금속 글자 틀을 의미한다. 지금은 디지털화되어 물리적인 활자가 필요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글자를 종이에 찍어 내려면 반드시 물질로 된 활자가 필요했다.

서양에서는 1450년대에 독일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가 금속 활자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는 어떤 디자인으로 활자를 만들었을까? 당시 중세 유럽에는 채식필사본彩飾筆寫本이라는 책이 있었다. 이 책들은 주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글자와 그림을 손으로 일일이 쓰고 직접 그려서 만든 아주 귀한 물건이었다.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 페이지가 넘는 성서 주석서 같은 경우 완성하는 데 4~5년이 걸리기도 했다. 책의 글씨를 쓰는 전문가를 '필경사Copisti'라고 불렀다. 한 권의 책은 여러 필경사들이 함께 작성했지만, 그들은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동일한 글씨체를 유지하기 위해 고도의 훈련을 받았다. 이런 이유로 중세의 채식필사본은 모두 비슷한 모양의 글자로 디자인되어 있으며, 이 글씨체를 '고딕체Gothic Type'라고 부른다.

구텐베르크는 자연스럽게 이 글씨체를 바탕으로 활자를 만들었다. 따라서 최초의

트리아누스 원주(1세기)
에 새겨진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글자 모양은
로만체 대문자의 바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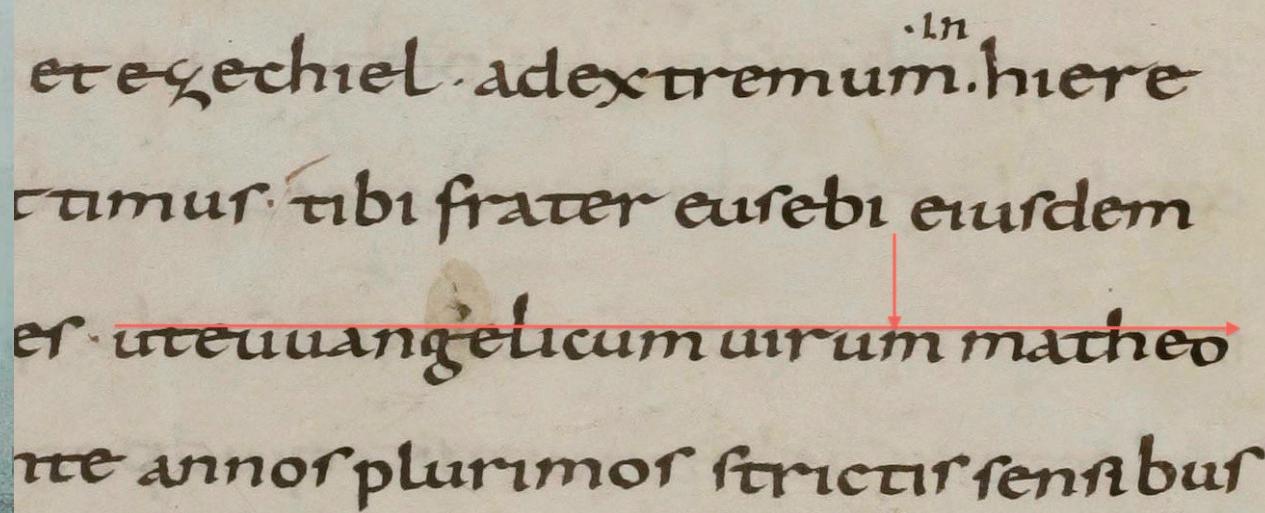
카를링거 소문자(8세기)
는 로만체 소문자의
바탕이 되었다

라틴 알파벳 활자는 바로 고딕체다. 고딕체는 고딕 성당을 닮아 획의 끝이 뾰족하고 획의 굵기가 굵은 특징이 있다. 현대인들에게는 읽기 쉬운 글씨체가 아니지만 당시에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야만에서 우아함으로, 로만체의 탄생

독일 지역에서 발명된 인쇄술은 르네상스를 맞이한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더욱 발전한다. 특히 베네치아는 15세기에 인쇄술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았다. 이탈리아의 인문학자들은 독일에서 건너온 이 혁명적인 기술을 반기면서도 그 활자 모양은 좋아하지 않았다. 로마 제국의 후예로서 문화적 자존심이 강한 이탈리아인들은 알프스 북쪽의 민족들을 모두 야만족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고트족Goths은 서로마제국을 멸망시킨 야만족이다. 따라서 이탈리아 인문학자들이 갈리아족 프랑스, 게르만족 독일이 만든 건축 양식에 '고딕Gothic'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경멸과 멸시를 담은 것이다. 이는 마치 우리말에서 '오랑캐 양식'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다.

그들은 특히 고딕 건축의 뾰족한 첨탑에서 야만성을 느꼈는데, 구텐베르크가 디자인한 고딕체 역시 뾰족한 것이 특징이어서 이 야만스러움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 이에 이탈리아 인문학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활자를 만들게 되었다. 이탈리아 인문



학자들이 새로운 활자를 디자인하고자 찾은 전통은 로마 시대에 만든 트라야누스 원주기념탑의 일종 같은 기념물이나 판테온 등 신전 건축, 바실리카 같은 공적인 건물의 입구에 쓰인 글자다. 특히 트라야누스 황제의 업적을 기린 이 기념물에 쓰인 비문^{碑文}은 로마 시대 건축만큼이나 조화롭다. 이런 기념물의 글자를 바탕으로 새로운 활자의 대문자를 디자인했다.

이 비문이 만들어진 시대에는 소문자가 없었기에, 소문자는 다른 참고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 8세기 말 프랑스 수도원에서 발전한 카롤링거 소문자^{Carolingian Minuscule}가 그 예이다. 손으로 쓴 이 소문자체는 이탈리아에도 퍼졌고, 15세기 이탈리아 인문학자들은 이를 자신들의 유산으로 여겼다. 이렇게 하여 탄생한 새로운 활자체가 바로 로만체^{Roman Type}다. 오늘날 우리가 영문 본문체로 알고 있는 바로 그 글꼴이다.

검정색이 지배적이어서 ‘블랙레터’라는 별칭이 붙은 고딕체와 달리 흰색 여백이 많은 로만체는 ‘화이트레터’라고도 한다. 새 글꼴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고딕체보다 가독성이 훨씬 높아서 그 뒤 유럽 모든 곳의 인쇄소로 퍼진다. 단 독일 지역에서는 고딕체를 20세기 초반까지도 본문체로 사용했다. 특히 히틀러와 나치는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더욱 고딕체를 고집했다. 오늘날에도 고딕체는 독일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서 카스, 하이트, 클라우드 같은 국내 맥주 브랜드들은 ‘맥주는 독일이 최고’라는 인식에 따라 고딕체를 현대적으로 변형한 로고를 사용한다.



MINT
main.

**Quousque tandem abutere,
Catilina, patientia nostra ?
quamdiu nos etiam furor is
te tuus eludet ? quem after
CONSTANTINOPLE
£1234567890**

1 모던 로만체는 세련된 특징 덕에 패션 잡지의 제호 디자인으로 많이 채택되었다.
획의 대비를 더욱 극단적으로 밀어붙여 얇은
획의 두께가 사라져
이에 선이 되었다

2 산업혁명 시대에 태어난 패페이스는 최초의 디스플레이 서체로 평가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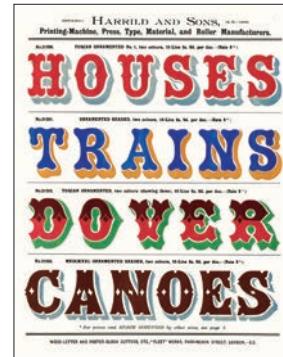
대학교 범퍼 재킷
(bomber jacket)에
적용된 슬랩 세리프.
한국 대학의 이른바
'과정(과점바)'도 미국의
전통을 따라 모두 슬랩
세리프로 디자인된다.

산업혁명이 불러온 활자 혁신

한편, 이탈리아와 프랑스 지역에서는 로만체가 점차 발전했다. 초기 로만체는 사람의 필체를 닮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계적인 형태로 변해 갔다. 17세기 말, 이탈리아의 잠바티스타 보도니와 프랑스의 프랑수아 디도는 새로운 형태의 로만체를 개발했다. 이 새로운 로만체는 굵은 획과 가는 획의 대비가 매우 크며, 세리프(획의 시작과 끝 부분에서 돌출된 작은 선)와 획이 직각에 가깝게 만나고, 대부분의 선이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기존의 로만체보다 훨씬 기계적인 느낌을 주어 ‘모던 로만체’라고 불렸다. 모던 로만체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주며, 이로 인해 패션 잡지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18세기까지 유럽의 인쇄소들은 이러한 본문용 로만체만을 사용해 모든 책을 제작했다. 글꼴 디자인에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은 산업혁명이었다. 산업혁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제품을 여러 지역으로 유통하고 모르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에 따라 광고와 홍보가 필요해졌고,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의 대도시 거리들은 포스터 전시장으로 변모했다. 포스터를 제작하는 인쇄소에서는 이제 큰 활자뿐만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끌고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글꼴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1803년, 영국인 로버트 손은 대단히 파격적인 활자를 발표한다. 그것은 모던 로만체에서 굵은 획을 더욱 두껍게 만든 디자인이다. 굉장히 뚱뚱해 보여서 ‘팻페이스^{Fatface}’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이 최초의 디스플레이 서체로 기록된다. 디스플레이 서체는 주로 포스터, 책 표지, 간판처럼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만든 활자로, 가독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강한 호소력을 가진 글꼴이라 할 수 있다. �эт페이스가 등장하자 디스플레이 서체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입체적인 글꼴, 글자를 흰색으로 하고 바탕을 검정색으로 반전시킨 글꼴, 글자 안에 꽃을 그려 넣은 화려한 글꼴 등이 그것이다.

또한, 획의 굵기 대비가 없이 일정한 슬랩 세리프^{Slap Serif}와 세리프를 아주 장식적으로 쓰는 ‘투스칸 스타일^{Tuscan Style}’도 등장했다. 슬랩 세리프와 투스칸 스타일은 영국에서 탄생했으나, 미국에서 오히려 큰 인기를 끌며 19세기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대표적인 글꼴로 자리 잡았다. 서커스 포스터나 현상금 포스터 등에서 슬랩 세리프와 투스칸 스타일 글꼴을 흔히 볼 수 있었고, 과거 미국 국가 대표팀의 로고, 아이비리그 대학의 재킷 글씨, 메이저리그 야구단의 로고 등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모더니즘과 디스플레이 서체의 시대

19세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활자 디자인이 탄생했다. 바로 세리프*가 없는 글꼴이다. 사람들 이 글을 쓸 때에는 세리프 없이 쓰지만, 활자에서 는 세리프가 있는 것이 기본이었다. 활자가 발명 된 이후 350년이 넘도록 세리프 없는 글꼴은 디자인된 적이 없었다. 그러던 중 1816년에 영국의 윌리엄 캐슬론 William Caslon 4세가 처음으로 세리프 없는 글꼴, 즉 '산세리프 Sans Serif'을 발표했다. 당시

19세기 사람들에게 산세리프는 너무나 낯설었기 때문에, 이를 '그로테스크 Grotesque'라고 부르기도 했다.

건축과 가구를 비롯한 모든 디자인 분야에서 장식이 당연시되었던 19세기 유럽인들에게 산세리프는 장식이 없이 아주 깔끔해 보이는 글자여서 인기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20세기의 모던 디자이너들은 장식을 무척 싫어했다. 간결한 산세리프는 드디어 디자이너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모더니즘이 전 세계에 정착하자 산세리프체는 드디어 꽃을 활짝 피우게 되었고,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글꼴로 자리 잡았다.

산세리프체는 세리프가 있는 로만체보다 가독성은 떨어지지만 판독성은 뛰어나다. 가독성은 책을 읽을 때 문장이 잘 읽히는 정도이고, 판독성은 개별 글자가 잘 식별되는 정도다. 따라서 산세리프는 문장보다는 단어 위주로 짧게 쓰는 교통 표지판, 기차역이나 공항과 같은 공공장소의 표지, 포스터 제목 등에 적합한 글꼴이다. 특히 산세리프 글꼴 중 헬베티카 Helvetica는 스위스에서 탄생하여 20세기에 가장 널리 쓰인 활자가 되었다. 컴퓨터 자판에도 산세리프 글꼴이 사용된다.

이처럼 19세기 이후 광고의 요구로 글꼴은 폭발적으로 다양해졌다. 한글 활자의 경우 기계화가 서양보다 훨씬 늦은 만큼 디스플레이 서체는 아주 뒤늦게 태어났다. 게다가 한글 글꼴 디자인에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 라틴 알파벳은 대소문자를 합쳐 52자만 디자인하면 되지만, 모아쓰기를 하는 한글은 2,300개 이상의 글자를 디

↳ 장식적인 투스칸
스티일은 19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글꼴이 되었다



↑
투스칸 스타일은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팀의
로고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
뉴욕 지하철 표지판에 적용된
산세리프인 헬베티카.
20세기에 가장 많이 쓰인 글꼴이다

**Brooklyn Bridge
City Hall Station**
4 5 6 J Z



* 세리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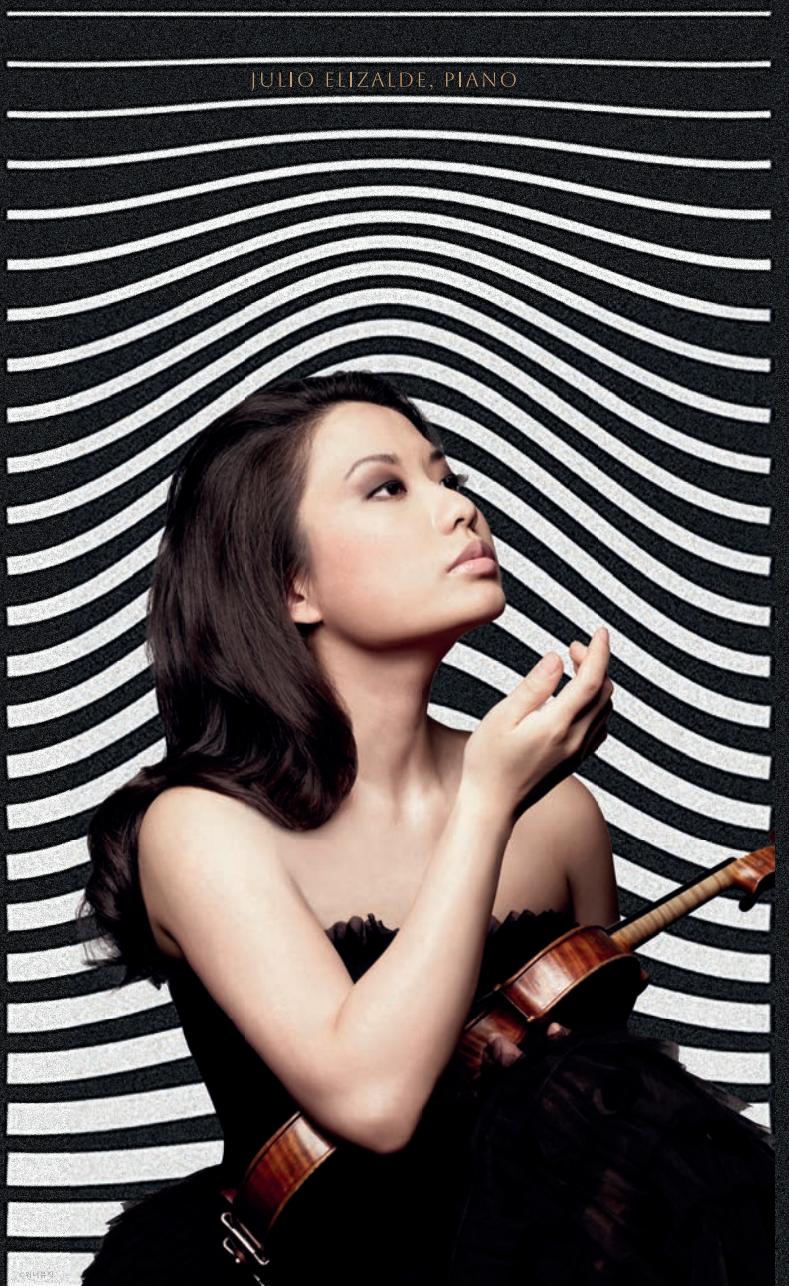
활자에서 글자와 기호를 이루는 획의 일부 끝이 돌출된 형태를 가리킨다.
세리프가 있는 글꼴은 세리프체(serif typeface, serifed typeface),
세리프가 없는 글꼴은 산세리프체(sans-serif)로 부른다.

자인해야 한다. 물론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한글 디스플레이 서체들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늘날에 디자이너가 개발한 서체만으로는 적합한 걸 찾지 못해 캘리그래피(손으로 쓴 글씨)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영화 포스터나 식품 패키지를 보면 캘리그래피를 쉽게 만날 수 있다. 디스플레이 서체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문용 서체만으로는 표정과 인상이 풍부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글자는 획의 길이와 두께, 획 사이의 대비, 직선과 곡선의 차이 등으로 마치 사람 얼굴의 변화만큼이나 다양한 표정과 인상을 만들 수 있다. 브랜드와 상품, 가게, 식당 등 저마다 자기만의 고유한 디자인을 갖고 싶어 하는 한 앞으로도 다양한 글꼴들이 디자인될 것이다.

SARAH CHANG VIOLIN RECITAL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JULIO ELIZALDE, PIANO



2024년 12월 10일(화) 오후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티켓 R 100,000 / S 80,000 / A 60,000 / 합성석 40,000 · 예매 1544-8117 · 문의 031-783-8000

20
2024-2025



아티스트 토크

작가 구래연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캘린더 + 맵

12월의 큐레이션

월별 프로그램 가이드

SNART NEWS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안내

SEONGNAM+

작가 구래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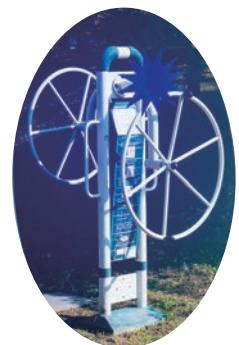
지금, 몇 개의 공원을 알고 있나요?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과장 | 사진 최재우





전시장 내부, 대형 전광판 앞에 펼쳐진 발판을 가까이서 살펴본다. 발판에는 패턴화된 성남의 지도 위, 도시 곳곳에 자리한 공원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다. 춤추듯 밟아 보면 각기 다른 사운드와 리듬,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고유한 ‘성남의 음악’이 생생히 움직이는 풍경과 함께 공간을 감싼다. 성남문화재단의 2024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모든예술31> 예술과 기술 융합 프로젝트 공모 선정작으로 선보인 전시 11월 7일~17일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 <Park Park Revolution>에서, 구래연 작가는 공원을 매개로 도시공간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경험을 선사한다.



11월 7일~17일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에서 선보인 구래연 작가의 관객참여형 작품 <Park Park Revolution>. 옛날 DDR 게임처럼, 공원의 이름이 적힌 패드를 밟을 때마다 화면에는 해당 공원이 지닌 고유의 사운드와 시각화된 패턴이 영상으로 펼쳐진다.

© Park Park Revolution, customized press sensor, LED panel, stereo sound interaction, variable installation, 2024

여름의 매미 소리, 졸졸 물 흐르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 자전거 경적 소리… 작가가 성남 곳곳의 공원에서 계절별로 채집한 일상의 백색소음, 각 공원의 지도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음성화한 데이터는 공원 고유의 사운드로 완성되어 관객 참여형 작품 <Park Park Revolution>으로 탄생했다. 그 옛날 유행하던 DDR 게임처럼, 공원의 이름이 적힌 패드를 밟을 때마다 화면에는 해당 공원의 시각화된 패턴이 영상으로 펼쳐진다. 익숙한 듯 낯선 공원의 풍경들은 음악과 함께 입체적으로 움직이며 도시의 리듬을 만들어 간다.

“공원의 풍경은 3D 입체 촬영이 가능한 스캐너 앱을 활용했어요. 가장자리가 잘 리기도 하고 모양이 완벽하진 않지만, 실제 장소를 스캔한 결과물이라 이미지를 변형하진 않죠. 다만 공원별로 배경색에 차이를 둬서, 화면 전환 시 장소의 변동을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가장 밀접한 비중을 지닌 도시와 그 부속 공간들의 관계성은 최근 몇 년 동안 구래연 작가가 집중하는 화두다. 그 관심은 자연스레 작가가 살고 있는 도시 곳곳의 공원에 대한 탐구로 이어졌다. 2018년 성남문화재단 청년지원프로젝트로 시작한 <숨은 공원 찾기>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바라보는 주제다.

“공원이란 도시 속에서 자연을 느끼기 위한 공간이지만, 사실 그 자체도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 정원이죠. 그 안의 꽃과 나무도 필요에 따라 베이고 제거되기도 하는, 인간의 태도가 엿보이는 곳이기도 해요. 인간이 점차 자연 환경을 잠식해 가면서 삶의 터전 역시 인공적인 환경으로 변해 가는 지금, 공원이라는 장소를 통해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와 공간의 의미를 생각하고자 했습니다.”

곁에 있지만 몰랐던 공간의 재발견에 대하여

성남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구래연 작가지만, 성남이란 도시에 특별한 애착을 지녔던 것은 아니었다. 그저 ‘1기 신도시’라는 일반적인 개념과 더불어 부모님과 함께 살며 잠을 자는 곳 정도였다고 회상한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찾아온 친구의 전화 한 통이 지역에 대한 각성의 계기가 된다.

“친구가 차를 몰고 저희 동네로 찾아왔는데, 어디쯤이냐 물으니 ‘오리공원 앞’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지? 하고 지도를 살펴보다 성남 곳곳에 즐비한 공원의 존재를 처음 인식했는데, 분당구에만 무려 127개나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에 어떤 공원이 있는지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숨은 공원 찾기> 작업의 시작점이었죠. 집 주변, 이매동, 판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작업 범위를 넓혀

갔고, 3년 동안 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 역시 성남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내 주변’을 모르는 분들과 장소를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고 싶었어요.”

도시와 공간의 탐구에 대한 구래연 작가의 작업은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졌다. 동네 공원의 나무와 자동차를 형상화한 스텁프를 찍고, 실크스크린 판화를 만드는 체험을 통해 일상 속 공원의 의미를 되새긴 <파크 프로젝트: 숨은 공원 찾기>, 성남 공원들의 스타일 이미지를 피아노 연주에 맞춰 구성한 영상과 공원 야외 음악회, 단편영화를 만날 수 있는 유튜브 채널 <숨은공원찾기TV>, 지난해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진행한 개인전 <시가 되어 노래하는 지도> 등 모두 공



© Artificial Nature, woods, printed foam boards, blue lights, variable installation, 2024

원과 도시, 공간과 현대인의 관계성을 탐구하는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작업 과정에서 만난 시민과 관객들은 전시의 참여자인 동시에 주체가 되고, 그 교류 속에 작업은 비로소 완성형으로 마무리된다.

“예를 들어 이번 전시에서는 공원 발판을 밟아 보던 어르신께서 ‘여기가 어느 공원이라고? 아, 거기! 내가 잘 알지’ 하며 풀어놓으시는 이야기로 대화가 시작되기도 해요. 어떤 의도로 이 작업을 기획했는지 말씀드리면 저마다의 감상을 자연스럽게 들려주시는데, 이런 이야기가 매 작업의 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시장에 자주 나오려고 하죠.”

예술을 빛내는 조연, 기술

이번 공모 분야가 '기술+예술'인 만큼, 구래연 작가의 작업에는 곳곳에 다양한 기술들이 자리한다. 인터랙티브 미디어처럼 다양한 응복합 콘텐츠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과 툴을 익히는 과정은 작가에게는 창작의 폭을 확장하는 단단한 기반이 된다.

"기회가 될 때마다 새로운 배움을 즐기는 성향이라, 제 작업도 자연스레 매체의 폭이 넓어지고 있어요. 특히 공간과 장소를 주로 다루다 보니 해당 표현에 특화된 기술에 관심이 가죠. 실감 나는 공간 구현을 위해 게임과 SF 영화에 사용하는 '언리얼엔진'으로 작은 게임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미지와 비디오 생성 AI 프로그램들도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그저 기술을 보여 주기 위한 작업이 되거나 관객이 이해할 수 없는 기술을 과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기술은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편하게 도와주는 도구가 되어



야지, 자칫 주제와 멀어지며 주객전도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전시의 메인 작품 <Park Park Revolution>은 비주얼 프로그래밍 언어인 터치디자이너TouchDesigner를 컨트롤타워로 영상, 음악, 센서가 연결되어 구현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관객이 참여하는 반응형 작품인 만큼, 발판 패드를 밟았을 때 무게를 감지하는 압력 센서의 선택과 연결은 가장 민감한 지점이었다. 작가는 실제 DDR 기계 센서를 포함해 이 작업에 맞는 여러 센서들의 테스트 과정을 수없이 거쳤다. 그렇게 결정된 최종 소재는 3D프린팅에 사용되는 TPU 필라멘트. 유연성과 탄성이 뛰어난 소재로, 오래 구우면 탄성이 살아나고 복원력이 좋아지는 특성을 지닌다.

"TPU가 스프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차례 실패 끝에 3D 프린터로 적절한 형태를 제작했어요. 전시 기간 중 망가질 경우를 대비해 여분 센서도 스무 개 넘게 만들어 뒀죠. 아두이노Arduino를 활용해 PC와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작업은 해당 분야 전문 작가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시장 주변을 둘러싼 목재 조형물 <Artificial Nature>는 디지털 기술과 상반되는 아날로그 감성이다. 전시장에 들어섰을 때 친숙하면서도 낯선 인공의 요소를 부여하기 위해 각목으로 성남의 산자락을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공원에서 찍은 사진들을 단순한 모형으로 배치했다. 분해 후 부피가 줄어드는 조립식 목재를 사용해 지속 가능성 역시 잊지 않았다.

"설치 작품들은 전시 종료 후 보관이 어려워 폐기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마음이 무겁죠. 특히 자연과 공원을 이야기하면서 대량의 쓰레기를 배출한다면 그 역시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환의 관점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구래연 작가에게 공원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공원이 우리에게 준 일상의 기억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들, 작업을 통해 더 많이 알아 가고 더 많이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성남시는 그에게도 비로소 진정한 고향이 되었다. 행정상의 소속이 아닌, 동료 예술가와 이웃들, 주민들과의 교류 속에 '진짜 우리 동네'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공원 프로젝트를 계속할수록 도시 속 공원의 역할, 사람들과의 관계, 바라는 점 등 다양한 시각에서 깊이를 더해 가고 있다고 느껴요. 방법적으로도, 또 다른 시각에서도 아직 할 얘기가 많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장소의 의미에 대해 앞으로도 조금 더 탐구를 이어 가고 싶습니다."

Seongnam Arts Center Monthly Guide

Calendar + Map + Programs

December 2024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2024년 12월

다채로운 음악 콘서트와 전시회부터 드라마틱한 춤과 연극까지,
성남아트센터가 준비한 다양한 예술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새로운 감동으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2024.12

① 오페라하우스 ② 콘서트홀 ③ 앙상블시어터 ④ 성남아트리움 ⑤ 큐브플라자 미디어홀 ⑥ 성남문화재단 기획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1 ■◎ 마카오 오페라하우스 리오 쿠오크민&김계희(17:00) ⑥ 경기청소년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15:00) ⑧ 뮤지컬 <꼬마버스 타요> (11:00, 14:00, 16:30)
2 ■◎ 성남문화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 (15:00)	3 ⑥ 대한문화예술제전 '상상'(19:30)	4 ⑥ 성남시립국악단 송년음악회 '조선 팔 예불루선'(19:30) ⑥ 대한문화예술제전 '상상'(19:30) ■◎ 무료 정기상영 <휴고>(14:00)	5 ⑥ 성남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19:30) '아주 멋지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선물'(19:30)	6 ⑥ 가천필하모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 (19:30) ■◎ 2024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송년음악회 <Fun Together>(19:30) ⑥ 이승철 콘서트<오케스트락2>(16:00) ⑥ 판교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19:00) ⑥ <매직컬 스크루지: 크리스마스 캐롤> (14:00, 16:30) ⑧ 뮤지컬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11:00, 14:00, 16:30)	7 ⑥ 이승철 콘서트<오케스트락2>(16:00) ⑥ <매직컬 스크루지: 크리스마스 캐롤> (11:00, 14:00, 16:30) ⑧ 뮤지컬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11:00, 14:00)	8 ⑥ 이승철 콘서트<오케스트락2>(16:00) ⑥ <매직컬 스크루지: 크리스마스 캐롤> (11:00, 14:00, 16:30) ⑧ 뮤지컬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11:00, 14:00)
9 ■◎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19:30)	10 ■◎ 무료 정기상영 <겨울왕국>(14:00)	11 ■◎ 무료 정기상영 <겨울왕국>(14:00)	12 ⑥ 성남시립합창단이 선사하는 '아주 멋지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선물'(19:30)	13 ■◎ <콜드 블러드>(19:30) ⑥ 필레이어즈필하모니오케스트라 송년음악회(19:30)	14 ■◎ <콜드 블러드>(15:00) ⑥ <매직컬 스크루지: 크리스마스 캐롤> (11:00, 14:00, 16:30) ⑥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꿈꾸는 예술학교>(18:00)	15 ⑥ 아주남성합창단 송년음악회(19:00) ⑥ <매직컬 스크루지: 크리스마스 캐롤> (11:00, 14:00, 16:30) ⑧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꿈꾸는 예술학교>(15:00)
16 ⑥ 법륜스님 '행복한 대화'(9:30)	17 ⑥ 파리나무신자가 소년소녀합창단 특별 초청 공연(19:30)	18 ■◎ <명탐정 셜록 홈즈: 붉은머리 연맹 거지 사내의 비밀> (19:30) ■◎ 무료 정기상영 <크리스마스 캐롤> (14:00)	19 ■◎ 마티네 콘서트(11:00) ■◎ <명탐정 셜록 홈즈: 붉은머리 연맹 거지 사내의 비밀> (19:30) ■◎ 제23회 정금란무용제(19:30)	20 ■◎ 오! 마이 패밀리 메리 크리스마스: 별빛 아래 크리스마스(19:30) ⑥ 저각 전국 투어 콘서트(17:00)	21 ⑥ 뮤지컬 <킹키부츠>(14:00, 19:00) ⑥ 전국 어린이 동요 대회 <리틀스타 in 성남>(15:00) ■◎ 오! 마이 패밀리 메리 크리스마스: 처음 만나는 바로크 악기(17:00) ⑥ 마술사 최형배의 오리지널 과학마술콘서트: 공룡편 (11:00, 14:00, 16:00)	22 ⑥ 뮤지컬 <킹키부츠>(14:00, 19:00) ⑥ '아름다운 동행' 장애인과 함께하는 음악회 (17:00) ⑧ 마술사 최형배의 오리지널 과학마술콘서트: 공룡편(11:00, 14:00)
23 ⑥ 크리스마스 지브리 OST 콘서트 'The Orchestra'(19:30) ⑥ <호두까기 인형>(16:00, 19:00) ⑥ 허각 전국 투어 콘서트(19:30)	24 ⑥ 크리스마스 지브리 OST 콘서트 'The Orchestra'(15:00) ⑥ <호두까기 인형>(11:00, 14:00, 16:00) ⑥ 허각 전국 투어 콘서트(17:00)	25 ⑥ 2024 거미 투어 콘서트 <LOVE>(19:30) ⑥ 어린이 오페라 <마술 피리>(20:00)	26 ⑥ 2024 거미 투어 콘서트 <LOVE>(18:00) ⑥ 어린이 오페라 <마술 피리>(15:00)	27 ⑥ 2024 거미 투어 콘서트 <LOVE>(18:00) ⑥ 어린이 오페라 <마술 피리>(15:00)	28 ⑥ 2024 거미 투어 콘서트 <LOVE>(18:00) ⑥ 2024 전국 나도 스타 음악회(19:30) ⑥ 어린이 오페라 <마술 피리>(15:00)	29 ⑥ 2024 모란장 전국 가요제 결승전(14:00)
30 ■◎ 송구영신 음악회(19:30)	31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

■ 겨울특별기획전 <프리다 칼로 레플리카>전	12월 13일~2025년 3월 16일	기획전시실
■ 지역예술가교류전 <촘추는 도시, 도시의 리듬>	11월 1일~12월 1일	기획전시실
■ 성남작가조명전 5 <서수영: Heritage Code>	11월 1일~12월 22일	반달갤러리
■ 소장품주제기획전 <사유의 정원>	2월 16일~12월 22일	상설전시실
■ 성남의 얼굴전 아외조각전 <리게더REGATHER>	10월 5일~12월 5일	성남아트센터 야외 일대

* 전시 관람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

갤러리808

경기향토작가 초대전(성남미술협회)	11월 26일~12월 5일
제15회 성남사생회 정기전	
꿈	12월 7일~12월 14일
제16회 성남워터아트전	
Color	12월 18일~12월 25일

* 전시 관람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

위 일정은 2024년 11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최신 정보는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www.snat.or.kr에서 확인해 주세요.

성남아트센터 공간 안내



1 오페라하우스

- B1 레스토랑 피글릿 *, 갤러리808 *
1F 오페라하우스 로비, 어린이놀이방, 수유실
2F 세계악기전시관

2 콘서트홀

- B1 아카데미 강의실
1F 콘서트홀 로비, 카페 콘서트

3 양상블시어터

- B1 아카데미 접수처/강의실, 카페 브람스
1F 양상블시어터 로비
2F 아카데미 강의실

4 사무동

- 1F 컨퍼런스홀, 뮤즈홀
2-4F 사무공간

5 성남큐브미술관

- 1)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2)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3)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6 큐브플라자-성남미디어센터

- 1) 성남미디어센터
2) 미디어홀
3) 악기랑
4) 카페 브람스
5) 큐브사랑방

7 빛의 계단

8 종합안내소

- I Plaza
☎ 031-783-8000

9 야외광장+특화거리

P 주차장

- 1) 오페라하우스 주차장
2) 콘서트홀 주차장
3) 야외주차장

⇒ 정문 정산소
(이매역 방면)

↳ 아탑역 방면

● 버스정류장
(성남아트센터·태원고교: 07202)

Monthly 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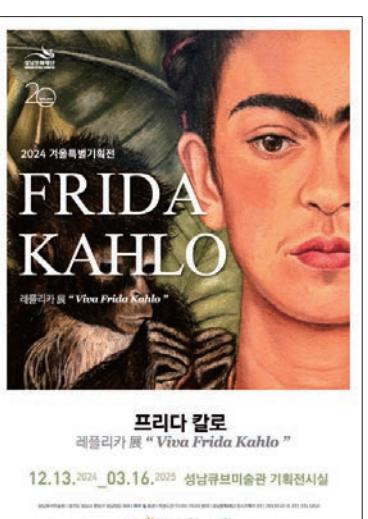


콜드 블러드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손가락들이 펼치는 서정적인 춤과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보여 주는 독특한 형식의 공연 <콜드 블러드>. 2014년 첫 내한 당시 화제를 모았던 <키스 앤 크라이>의 창작진이 두 번째로 선보이는 화제작으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의 7 가지 기억을 다채롭고 생생한 감각으로 무대 위에 펼쳐 낸다. <토토의 천국> <제8요일>의 영화감독 자코 반 도마엘 연출, 아내이자 안무가인 미셸 안느 드 메이의 아름다운 시너지를 확인할 수 있다. 배우 유지태가 <키스 앤 크라이>에 이어 이번 작품에서도 내레이션을 맡아 공연에 신비로운 무드를 더할 전망이다.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일시 | 12월 13일(금) 오후 7시 30분, 14일(토) 오후 3시

티켓 | R석 70,000원, S석 50,000원
문의 | 031-783-8000

Q	Monthly Guide	Q	Monthly Guide
	<p>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p> <p>오랫동안 국민적 사랑을 받아 온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이 브람스와 프로코피예프의 소나타로 19년 만에 성남아트센터를 찾는다. 1990년대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화제의 분더킨트에서 원숙한 중견 연주자로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이어 가는 사라 장의 오늘을 확인할 수 있다.</p>		 <p>오! 마이 패밀리 메리 크리스마스</p> <p>세대를 초월해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음악회 <오! 마이 패밀리 메리 크리스마스>는 12월 20일과 21일, 두 차례 성남아트센터 양상블시어터에서 관객에게 따뜻한 음악 선물을 선사한다. 20일에는 '별빛 아래 크리스마스', 21일 토요일 저녁에는 '처음 만나는 바로 크 악기'라는 테마 아래 크리스마스와 겨울 시즌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감상할 수 있다.</p>
<p>장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일시 12월 10일(화) 오후 7시 30분</p>	<p>티켓 R석 100,000원, S석 80,000원 문의 031-783-8000</p>		<p>장소 성남아트센터 양상블시어터 일시 12월 20일(금) 오후 7시 30분, 21일(토) 오후 5시</p>
	<p>마티네 콘서트 12월</p> <p>성남아트센터의 대표 브랜드 공연 <마티네 콘서트>는 올 한 해 '보헤미아의 숲과 들'이라는 주제 아래 체코 출신, 또 체코와 인연이 깊었던 작곡가들의 작품을 선보여 왔다. 2024년 마티네 콘서트의 마지막 테마는 '겨울 이야기'. 백승현이 지휘하는 성남시립교향악단과 첼리스트 이상은이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 B단조> 그리고 수크의 <겨울 저녁 이야기>를 들려준다.</p>		 <p>프리다 칼로 레플리카전 'Viva Frida Kahlo'</p> <p>멕시코를 대표하는 여성 화가 프리다 칼로의 대표작들을 레플리카로 만날 수 있는 <프리다 칼로 레플리카전: 'Viva Frida Kahlo'>가 12월 13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칼로가 평생에 걸쳐 남긴 80여 점의 기록들을 만날 수 있다.</p>
<p>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일시 12월 19일(목) 오전 11시</p>	<p>티켓 전석 25,000원 문의 031-783-8000</p>		<p>장소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일시 12월 13일(금)~2025년 3월 16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휴) 티켓 성인 6,000원, 청소년 5,000원 문의 031-783-8142~9</p>

Monthly Guide	
	<p>2024 SEO SOOYOUNG: HERITAGE CODE</p> <p><서수영: HERITAGE CODE></p> <p>'성남작가조명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다섯 번째 전시는 <서수영: HERITAGE CODE>다. 동시대에도 통용되는 '한국미의 근원'을 찾기 위해, 미술사적 가치가 인정된 국보급 문화재 작품을 작업 주제로 오마주 <i>homage</i>하며 한국미의 재해석을 시도하는 서수영 작가의 대표작 30여 점과 신작 6점을 감상할 수 있다.</p>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일시 11월 1일(금)~12월 22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휴)	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3
	<p>2024 소장품주제기획전 <사유의 정원></p> <p>성남큐브미술관이 수집한 소장품을 엄선한 주제 기획전. 동시대 작가 8인(박상미, 고혜숙, 윤길영, 유한이, 유봉상, 조창환, 이계진, 황현숙)의 작품을 통해 그 속에 담긴 작가의 '사유의 여정'을 만날 수 있다.</p>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일시 2월 16일(금)~12월 22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휴)	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2~9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2024 그림책 비엔날레' 개최



성남문화재단이 그림책을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놀

이를 체험하고 즐기는 '2024 그림책 비엔날레'를 11월

2일(토)부터 8일(금)까지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성남

꿈꾸는예술터)에서 개최했다. '등실등실 꿈꾸는 동산'

이란 제목으로 열린 비엔날레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는 '그림책 예술놀이' 수업 일부를 예술교육가가 직접

선보이는 '예술교육가 1일 체험수업'부터 다양한 예술

체험 프로그램, 공연과 전시 등이 펼쳐졌다.

먼저 비엔날레 기간 중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로비

에서는 비엔날레 캐릭터 입체화 등으로 꾸며진 '환영

합니다. 그림책 예술놀이' 전시를, 1층 라운지에서는

2024 그림책 예술놀이의 진행 경과와 현장 사례를 소

개하는 전시를 선보였다.

'그림책 예술놀이' 수업 중 일부 활동을 체험하는 '예

술교육가 1일 체험수업'은 유아문화예술 교육가와 함



께하는 '말랑말랑 감각을 깨워요!'와 성남 문화예술교

육사 현장중심 역량강화 수료생이 운영하는 '올랑을

랑 놀이를 만나요!'가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진행됐다. 또 어린이들의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성남시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함께 선정

한 체험형 연극 공연과 팝업 인형극, 샌드아트 및 아

동극, 영유아극 등 공연과 더불어 그림책과 연계한 다

양한 예술 놀이도 선보였다.

성남문화재단은 이번 '2024 그림책 비엔날레'를 통해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그림책과

문화예술교육의 융합 프로그램 '그림책 예술놀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성남아트센터 2025년도 수시대관 공고



오페라하우스

세계적 수준의 무대시설을 갖춘 1,808석 규모의 다목적 복합 공연장. 오페라, 발레, 뮤지컬 등 종합구성물을 비롯, 클래식 콘서트까지 모든 공연예술 장르의 공연이 가능하다. 기본 잔향을 1.6초부터 3초까지 조정, 객석에서 최적의 음향을 감상할 수 있다.

콘서트홀

클래식 오케스트라 콘서트 등 순수음악 공연을 위한 1,102석 규모의 공연장, 그랜드 피아노 형상의 아름다운 외관, 쾌적하고 안락한 감상이 가능하도록 무대막이 없는 아레나형 무대가 특징이다.

양상블시어터

연극, 리사이틀, 실험적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공연예술을 담아낼 수 있는 378석의 복합공연장. 객석으로 돌출하는 T자형 무대장치, 주무대의 회전장치 등으로 무대와 청중이 함께 호흡하는 관객친화적 연출이 가능하다.

대관시설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양상블시어터

* 콘서트홀은 클래식 콘서트 전용홀로 종합구성물의 공연은 대관하지 않음

* 관객을 위한 공연물이 아닌 일반 행사는 대관하지 않음

대관기간

2025년 3월 1일 - 12월 31일

* 성남아트센터 기획공연 및

무대 점검 기관 제외

* 매주 월요일 휴관

* 내부 사정에 따라 대관 가능일은 변경될 수 있음

* 콘서트홀의 경우 아래 기간은 일반대관 신청 지향

- 성남미래 음악주간 : 2025. 9. 25. ~ 10. 3.

신청 안내

* 접수기간 2024년 12월 18일(수) ~ 2025년 1월 10일(금)

* 접수방법 성남아트센터 온라인 대관시스템(snart.or.kr/rental),
이메일/방문접수 불가

제출서류

- 온라인 대관신청서(소정 양식) 1부
- 공연계획서(공연 참고자료, 홍보 영상물 혹은 사진 등) 자유양식 1부
- 출연자(또는 단체) 계약서 혹은 증빙자료 사본 1부
- 출연자(또는 단체) 및 공연 주최사 약력 1부
- 사업자등록증 혹은 대표자의 프로필 사본 1부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문의

* rental@snart.or.kr

* 오페라하우스 031-783-8042

* 콘서트홀 031-783-8046

* 양상블시어터 031-783-8066

